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 학위논문

〈天象列次分野之圖〉에 나타난  
역사계승의식

2016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남궁승원

## 〈天象列次分野之圖〉에 나타난 역사계승의식

남궁승원

본 논문은 〈天象列次分野之圖〉의 유래에 대한 기존 인식의 흐름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천문도의 유래가 기록되어 있는 〈天文圖誌〉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조선 초기의 역사계승의식과 왕조교체의 정당화 방식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새롭게 해석하고자 했다.

〈천상열차분야지도〉는 일반적으로 고구려의 천문도를 모본으로 해서 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천문도의 유래에 대해 설명한 〈천문도지〉에는 이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 있지 않다.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고구려 천문도를 모본으로 해서 제작되었다는 이론을 처음으로 제기한 것은 미국인 천문학자였던 윌 칼 루퍼스(Will Carl Rufus)였다. 루퍼스가 고구려 기원설을 주장하면서 제기했던 주요 문헌 근거는 〈천문도지〉가 아닌 《大東野乘》에 수록된 〈陽村圖說〉이었다. 그러나 전상운을 시작으로 이후 이루어진 다수의 연구는 〈천문도지〉 자체가 고구려 기원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주요 근거인 것처럼 인식했으며 이러한 인식은 점차 상식이 되었다. 기존 연구의 인식과 다른 방식으로 그 유래를 검토한 연구도 있었지만 고구려 기원설을 근본적으로 반박하지 못했다.

〈천상열차분야지도〉의 고구려 기원설은 문헌적으로, 천문학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며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직접적인 모본은 고려의 천문도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주요 근거였던 〈양촌도설〉 자체의 사료적 신빙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루퍼스는 그 내용을 잘못 해석하여 ‘고려 말’이라는 표현을 고구려 말로 오독했다. 이는 천문도의 고구려 기원설에 대한 문헌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천문도에 대한 기존의 천문학적 분석 역시 여러 문제가 있다. 기존 천문학적 분석 결과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천상열차분야지도〉의 관측 추정

주체는 낙랑군이라는 결론이 도출되므로 고구려 기원설을 증명해주지 못한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천문도 제작시기 추정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근거를 루퍼스의 잘못된 문헌 해석에 의존했다. 따라서 기존 연구들은 천문도 제작시기 추정의 상한선을 제시할 뿐 적절한 하한선을 제시한다고 볼 수 없다.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중앙 부분 관측 위도는 북위 38도이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이를 고구려 천문도가 조선 초기 전체적으로 개정된 증거로 파악했으나 이는 〈천문도지〉의 내용과 상충된다. 〈천상열차분야지도〉에 고려시대의 피휘 및 11세기 중국 천문 문헌의 내용이 나타난다는 안상현의 연구와 〈천문도지〉의 내용, 그리고 북위 38도에 고려의 수도가 위치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 관측 위도는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모본이 고려의 천문도임을 보여주는 근거이다.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모본이 고려의 천문도라고 할 때 〈천문도지〉에서 천문도의 모본이 위치했다고 언급한 ‘평양’은 새롭게 해석되어야 한다. 권근이 〈천문도지〉에서 언급한 ‘평양’은 고조선의 수도였던 평양을 가리키는 함의를 가지며 이는 〈천문도지〉가 조선 초기 건국세력들의 역사 계승의식을 보여주는 사료라는 것을 의미한다. 〈천문도지〉에서 고려-조선의 왕조교체를 요순의 선양과 연결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천문도지〉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보다 왕조의 정통성을 강조하려는 목적에 충실한 글이다. 이는 ‘평양’이라는 표현이 정통성 강조라는 목적에 따라 쓰인 것임을 보여준다. 〈천상열차분야지도〉가 만들어지던 시기의 조선은 고구려보다는 단군, 기자의 고조선에 대한 계승의식을 더 크게 가지고 있었으며 평양은 단군, 기자의 도읍이었다는 측면에서 중시되었다.

도설의 저자인 권근이 ‘평양’에 부가하는 의미 또한 중요 근거이다. 권근은 명나라 황제와 시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평양’을 기자로 대표되는 사대관계의 상징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한 〈천상열차분야지도〉가 제작된 것과 같은 시기에 저술한 글에서 왕조의 정통성을 강조하며 이성계를 요순과 연결시켰고 왕조교체를 선양으로 표현하는 동시에 국가의 정통성을 기자에 연결시켰다. 이는 권근이 왕조교체를 정당화했던 방식을 보여주며 같은 의도에서 만들어진 〈천상열차분야지도〉와 그 유래를 저술한 〈천

문도지>에서 나타난 ‘평양’이란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보여준다. 이에 따라 <천상열차분야지도>는 조선 초 지식인들의 기자 계승의식을 보여주는 사료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주요어 : 천상열차분야지도, 천문도, 권근, 계승의식, 고조선, 기자  
학 번 : 2014-22250

## 목 차

머리말	..... 1
一. 고구려 천문도 기원설의 탄생과 확대	..... 7
二. 고구려 기원설의 문제점	..... 20
1. 문헌근거의 문제	..... 20
2. 천문학적 분석과 역사적 사실과의 괴리	..... 23
三. 천문도 기원으로서의 ‘평양’이 가지는 의미	..... 30
1. 〈천문도지〉라는 자료의 성격과 ‘평양’ 해석	..... 30
2. 여말선초의 ‘평양’ 인식	..... 37
3. 권근의 인식	..... 41
맺음말	..... 50
참고문헌	..... 53
Abstract	..... 57

## 머리말

1395년(조선 태조4)에 만들어진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는 조선왕조의 대표적 과학 유물로 제작 연도가 매우 오래된 전천(全天) 천문도 중 하나이다. 동아시아에서는 3세기 진탁(陳卓)이 283과 1464개의 별을 묘사하면서부터 전체 하늘의 별자리를 묘사한 천문도가 제작되기 시작했다. 이후 수당 대의 천문서인 《보천가(步天歌)》에서 281과 1445성으로 전천 별자리의 표준 체계를 만들었으며 이러한 체계를 따르는 천문도 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은 1247년(남송 순우 7)에 제작된 〈순우천문도(淳祐天文圖)〉이다. 〈천상열차분야지도〉는 이러한 별자리 체계를 포괄하는 천문도로서 〈순우천문도〉에 이어 현존하는 두 번째로 오래된 천문도이다.

〈천상열차분야지도〉는 전천 별자리를 묘사한 중앙의 성도(星圖)와 성도 주변에 새겨진 천문 이론 및 상수(常數)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조선시대 천문 역법의 기준 역할을 했다. 이러한 기능은 군주의 의무인 관상수시(觀象授時)를 실현하는 근간이 되었을 것이다. 유교적 가치관에서 군주는 천체의 주기적인 현상을 파악해 계절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백성에게 전달할 의무와 독점적인 권리를 가졌다.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궁궐 내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이것이 조선의 군주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유물임을 의미한다.

〈천상열차분야지도〉는 해방 이전 서양 천문학자인 루퍼스(Rufus)의 연구가 있는 이래 여러 학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천상열차분야지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천문학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면서 몇몇 논쟁을 낳았는데 논쟁의 초점은 주로 모본인 옛 천문도의 제작 시기에 있었다. 그 외에 이것이 조선 초에 제작되면서 다시 개정되었는지의 여부, 양면에 천문도가 석각되어 있는 태조본 〈천상열차분야지도〉에서 어느 쪽 면이 먼저 만들어졌는지의 문제 및 이후 세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천문도 석각 기사와 〈천상열차분야지도〉의 관련성 등의 주제가 많은 주목을 받았다.<sup>1)</sup>

〈천상열차분야지도〉에 대한 기존 연구는 일반적으로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고구려의 천문지식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는 이론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고구려와 조선의 천문학을 연결시키는 이러한 식의 이해는 한국사 내 천문지식의 계승을 나타냄으로써 민족사적인 연속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했다.<sup>2)</sup> 뿐만 아니라 기존의 연구들은 〈천상열차분야지도〉가 제작의 바탕이 된 모본과 내용상 큰 차이가 없다고 전제함으로써 이를 통해 〈천상열차분야지도〉에서 확인되는 천문지식의 수준을 고구려 시기의 그것으로 소급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한반도 고대 국가가 가졌던 천문지식의 발전 정도를 높게 평가하는 근거로 이용되었다.<sup>3)</sup> 그러한 서술은 기존 연구에서 많이 나타난다. 고구려 시기에 “그러한 석각 천문도를 가진 나라는 거의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3세기의 성도에 대한 동아시아 사람들의 지식을 담고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규정한 사례도 발견된다.<sup>4)</sup> 이러한 방식의 이해는 중국 〈순우천문도〉보다 석각 시기가 뒤지는 〈천상열차분야지도〉에 대해 그 원본은 더 앞선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설명함으

1) 〈천상열차분야지도〉에 대한 기존 연구는 다음과 같다.

구만옥, 2007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 연구의 쟁점(爭點)에 대한 검토(檢討)와 제언(提言)〉 《동방학지》 140.

박명순, 1995 〈天象列次分野之圖에 대한 고찰〉 《한국과학사학회지》 17(1).

박창범, 1998 〈天象列次分野之圖의 별그림 분석〉 《한국과학사학회지》 20(2).

안상현, 2011 〈천상열차분야지도에 나오는 고려시대 피휘와 천문도의 기원〉 《古宮文化》 4.

안상현, 2013 〈『天象列次分野之圖』 圖說의 문헌학적 연구〉 民族文化 42.

이은성, 1986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분석〉 《세종학연구》 1.

한영호, 2007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의 실제 재조명〉 《古宮文化》 1, 11쪽.

W. C. Rufus, 1913 “The Celestial Planisphere of King Yi Tae Jo” Transactions of Korean Branches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4(3).

이외에도 한국 과학사를 다룬 여러 저술에서 〈천상열차분야지도〉가 중요하게 언급되었다.

2) 김일권, 2008 《고구려 별자리와 신화》, 사계절, 47쪽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3) 나일성은 〈천상열차분야지도〉와 그 모본의 내용을 동일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구려가 있을 시기 이렇게 훌륭한 천문도가 중국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기원했다고 알려져 있는 동아시아 별자리의 이름이 중국이 아닌 고구려에서 만들어진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할 정도였다. 나일성, 2000 《한국천문학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76쪽.

4) 전상운, 2000 《한국과학사》, 사이언스북스, 58쪽.



로써 세계 최고(最古)의 전천 천문도가 한반도에 존재했었다는 것을 암시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의 연구에서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원본이었던 천문도의 제작 시기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기는 하지만 대체로 그것이 고구려의 천문도라는 것을 입증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구체적인 시기 추정에서 차이를 보일지언정 그 결론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고구려의 천문도를 계승했다는 주장에 대한 1차 근거로는 권근이 천문도에 석각해 놓은 <천문도지(天文圖誌)>가 제시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 천문도의 석본은 옛날에 평양성에 있었는데, 병란으로 인해 강에 빠져 잃어버렸으며 세월이 오래되어 인본(印本)을 보존하는 자 또한 없어졌습니다. 우리 전하께서 천명을 받으신 초기에 한 본을 올리는 자가 있으니 전하께서 이를 보배로 중요하게 여기고 서운관에 명하여 돌에 다시 새기게 하셨습니다. 본관이 상언하기를, “이 그림은 세월이 오래되어 별의 도수가 차이가 나니 마땅히 다시 관측해 지금 사중(四仲=음력 2, 5, 8, 11월)의 저녁과 새벽의 중성(中星=하늘 정남쪽에 보이는 별)을 정해 새 그림을 만들어 후세에 보이십시오.”하니, 상께서 동의하시어 지난 을해년 여름 6월에 새로 중성기(中星記) 한편을 지어 올렸습니다. 옛 그림에는 입춘 혼각(昏刻)에 묘성(昴星)이 남중(南中)하는데 지금은 곧 위성(胃星)이 남중하므로 24절기가 차례로 어긋납니다. 이에 옛 그림에서 중성을 고쳐 돌에 새기는 것이 막 끝나니 신(권)근에게 명하여 그 뒤에 지(誌)를 붙이라 하셨습니다.<sup>5)</sup>

5) 權近, 《天文圖誌》; “右天文圖石本 舊在平壤城 因兵亂 沉于江而失之 歲月既久 其印本之存者 亦絕無矣 惟我殿下 受命之初 有以一本投進者 殿下寶重之 命書雲觀重刻于石 本觀上言 此圖歲久 星度已差 宜「宜」更推步 以定今四仲昏曉之中 勒成新圖 以示于後 上以爲然 越乙亥夏六月 新修中星記一編以進 舊圖立春昴中於昏 而今則爲胃 二十四氣以次而差 於是因舊圖 改中星鐫石甫訖 迺命臣近誌其後”

원문은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석본에 새겨져 있는 것으로 “양홍진, 2014 《디지털 천상열차분야지도》, 경북대학교출판부”를 참조했다. 「」안의 글자는 《동문선(東文選)》 권 105에 수록된 <천문도지(天文圖誌)>의 내용이다. 현재 고전번역원에서 출간한 《양촌집》의 저본인 1674년의 《양촌집》 중간본에도 <천문도지(天文圖誌)>가 실려 있으나 제목이 <천문도시(天文圖詩)>로 되어 있다. <천상열차분야지도> 석본에는 해당 글의 제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命臣近誌其後”라 하여 글의 성격

위 글은 권근이 천문도의 유래를 설명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천상열차분야지도>에 대한 기존 연구는 이 명문이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고구려에서 제작된 천문자료에서 유래되었음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해석한다. 그런데 정작 해당 기록에는 어디에도 고구려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저 천문도의 석본이 평양성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평양 지역에 도시가 존재한 것은 그 연원이 오래되었으며 여러 정치체가 이곳을 점유했다. 또한 평양이 전란에 휩쓸린 경우 역시 많았다. 이 기사만으로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고구려의 천문관측기록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평양성에 있었다는 천문도와 고구려의 연결고리에 대한 명확한 논증 없이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유래에 대한 기존의 설이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되어 왔다.

최근 안상현은 이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그는 해당 자료에 ‘고구려’라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천상열차분야지도>에 나타나는 고려 시대의 흔적을 분석해 유래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가능성을 제시했다.<sup>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는 본격적인 논쟁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안상현의 연구가 나온 이후에 출간된 책에서도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sup>7)</sup> 2014년에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성도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정밀하게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여기에서도 안상현의 연구는 논의의 대상으로도 들어가지 못했다.<sup>8)</sup> 그렇지만 기존의 연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분명한 이상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유래에 대한 문제는 본격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천상열차분야지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대개 과학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천상열차분야지도>가 천체를 묘사하고 있는 유물이라는 측면에서는 타당한 일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여러 천문학적인 특징들이 밝혀졌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구는 <천상열차분야

---

이誌라고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1674년 중간본 《양춘집》의 내용을 석본과 비교했을 때 같지 않은 글자가 《동문선》 수록본보다 더 많다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현재 전해지는 《양춘집》의 것은 오자인 것으로 판단된다.

6) 안상현, 2011 앞의 논문 ; 안상현, 2013 앞의 논문.

7) 한국천문연구원 편, 2013 《천문을 담은 그릇》, 한국천문연구원.

8) 양홍진, 2014 《디지털 천상열차분야지도》, 경북대학교출판부.

지도>가 자연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려는 목적을 가진 근대 과학 유물인 것처럼 간주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전체적인 역사적 흐름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과학적 분석이 가져오는 역사적 결론에 대해 살펴보지 않았다. <천상열차분야지도>는 과학 자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당시의 시대적 환경 아래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사료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만들어졌던 목적과 배경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천상열차분야지도>가 신 왕조 성립 과정에서 관상수시(觀象授時)라는 유교적 이념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정리하여 그 자료의 성격을 본격적으로 탐구하지 않았고 그 내용을 이에 맞추어 해석하지도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인식에 따라 역사학의 입장에서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유래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시작되고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 연구를 따라 올라가 최초의 연구가 무엇을 출처로 하여 어떤 논리를 통해 <천상열차분야지도>를 고구려의 천문도로 규정했는지, 그리고 후속 연구들이 최초의 주장을 어떤 방식으로 재생산했는지를 살펴보고 그 타당성을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천상열차분야지도>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역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에서는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모본이 고구려의 천문도가 맞는지의 문제를 파악해 보려 한다. <천상열차분야지도>에 실려 고구려 시대의 천문지식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천문도의 모본이 고구려 천문도라고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연구는 이 부분을 간과했다. 이 문제는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천문지식을 이전 시기로 소급시킬 수 있을지 여부와 관련해 중요하며 고구려 시기 천문학에 대한 현재 학계의 인식을 점검하는 데도 유효하다. 본 논문에서 또한 다룰 것은 <천상열차분야지도>에 석각되어 있는 권근의 기록에 대한 해석 문제이다. 이것은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유래에 대한 검토인 동시에 조선의 건국세력이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의식을 가졌는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해석을 통해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조선 건국세력의 계승의식과 연관된 사료로서 이

해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의 흐름을 분석함으로써 고정관념화 되어 있는 기존 인식의 토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본격적인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은 어떠한 지식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며 여러 근거를 통해 뒷받침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에 대한 연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조선왕조의 건국세력들이 가지고 있던 의식과 더불어 본 논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바이다.

## 一. 고구려 천문도 기원설의 탄생과 확대

조선시대에는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유래를 특별한 연구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유래에 대한 서술은 천문도에 석각되어 있고 《양촌집(陽村集)》에도 수록되어 있는 권근의 <천문도지>의 내용을 기초로 약간씩 표현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의 <상위고(象緯考)》에 수록된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유래에 대한 서술 역시 몇몇 단어를 제외하고는 <천문도지>의 내용과 동일하다. 영조대 황윤석의 《이수신편(理藪新編)》에서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국조석본천문도(國祖石本天文圖)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태조 4년에 권근이 기(記)를 썼다고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sup>9)</sup> 그 외에는 천문도의 내용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 이를 보았을 때 조선시대에는 태조대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제작했다는 사실을 넘어서 <천문도지>에 기록되어 있는 인본의 정체가 무엇인지 탐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유래에 대한 본격적인 주장은 월 칼 루퍼스(Will Carl Rufus)로부터 시작되었다.<sup>10)</sup> 그보다 이전에 서구인으로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존재를 알린 인물은 조선에 부임한 프랑스 외교관의 보좌관이었던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이었다. 그는 조선에 존재한

9) 黃胤錫, 《理藪新編》 권 5 「星辰」(아세아문화사 영인본); “我太祖四年也 權近爲記 在印本下方”

10) 월 칼 루퍼스(1876-1946)는 미국인으로 1907년 가족과 함께 한국에 와서 평양에 머무르며 10년간 선교사이자 과학 교사로 조선 학생들을 가르쳤다. 루퍼스는 한국 근대 천문학 연구를 시작했던 인물이다. 그는 평양 숭실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1915년부터는 연희전문학교 교수가 되어 수학과 천문학을 가르쳤다. 1917년에는 일본 식민지 교육의 모순으로 인해 귀국했다. 1935년 그는 조선에 다시 들어와 1년 뒤 *Korean Astronomy*를 저술하기도 했다. 루퍼스는 <천상열차분야지도>에 대한 연구 외에도 침성대에 대해 짧게 다루기도 했다. 루퍼스는 한국의 첫 천문학 박사인 이원철을 지도한 인물이기도 하며 한국 뿐 아니라 중국의 천문학도 연구하여 중국의 대표적인 천문도인 <순우천문도>에 대한 연구를 남기기도 했다. ; 박성래, 2011 《인물 과학사》, 책과 함께, 415-418쪽.

수많은 문헌들의 서지사항을 종합해 *Bibliographic Coreenne*를 저술했다. 여기에서 그는 <천상열차분야지도>에 대해 간략히 기술했지만 그 유래를 특별히 다루지는 않았으며 명문의 내용에 맞추어 “이 지도의 雕板은 가장 오래된 石版에 의한 것인데 평양 근처에 있던 이 돌은 분실되었다.”라고만 기록했다.<sup>11)</sup> 루퍼스는 자신의 연구에서 *Bibliographic Coreenne*를 인용했지만 그 내용을 보았을 때 천문도가 고구려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은 루퍼스 개인의 것으로 보인다. 루퍼스는 우선 자신의 논문에 석본에 새겨져 있는 <천문도지>의 내용을 충실히 번역해 옮겨놓았다. 번역 실수가 몇 군데 확인되지만 그 유래를 밝히는 내용은 의미에 맞게 번역했다.

위 천문도의 사라진 석본은 평양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전쟁의 난리로 인해 강에 빠졌으며 사라진지 많은 해가 지나면서 원본의 탁본들 또한 모두 사라졌다. 그러나 전하께서 통치를 시작하셨을 때 원본 중 하나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것을 바쳤다. 전하께서는 그에게 매우 큰 상을 내리고 궁정 천문학자들에게 이를 석본에 새로 새기도록 명했다.<sup>12)</sup>

이어서 그는 《증보문헌비고》의 <천상열차분야지도>에 대한 설명을 인용한 뒤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라진 돌의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양촌도설(陽村圖說)>을 인용한 《대동야승(大東野乘)》 5권 219쪽에서는 옛 석본이 고구려가 멸망한 서기 672년에 강에 빠져 사라졌다고 기록했다.<sup>13)</sup>

11) 모리스 꾸랑 저, 이희재 역, 1994 《한국서지》, 一潮閣, 563쪽 (이는 1895-96 *Bibliographic Coréenne : tableau littéraire de la Corée*, Paris : Ernest Leyeux의 번역본이다).

12) W. C. Rufus, 1913 앞의 논문, 26쪽. ; “The lost model stone of the above astronomical chart was kept in Pyeng Yang, but on account of the disturbance of war it was sunk in the river ; many years having passed since it was lost, existing rubbings of the original were also out of stock. However, when His Majesty began to reign, a man having one of the originals tendered it to him. His Majesty prized it very highly and ordered the court astronomers to engrave it anew on a stone model.”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루퍼스는 《대동야승》에 수록되어 있는 〈양촌도설〉에 구 석본이 고구려가 멸망한 해인 서기 672년 강에 빠졌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도설에 나타난 중성의 변화에 대한 기록을 근거로 천문학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이러한 자신의 해석을 뒷받침했다. 여기에서 루퍼스가 명확하게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모본이 고구려의 천문도였다고 단언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유래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 자신이 해석한 〈양촌도설〉의 내용을 끌어왔으며 기타 설명 또한 그에 맞추어 서술했고 무엇보다 옛 평양 석본이 망실된 시점이 고구려 멸망 시기라고 서술했다. 루퍼스의 연구 앞부분에서 권근의 〈천문도지〉의 내용을 모두 번역하고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에도 그와 관련해서 고구려에서 유래되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루퍼스가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모본을 고구려의 천문도라고 단정한 핵심적인 근거는 〈양촌도설〉의 내용임이 분명하다.

루퍼스는 이후 몇 편의 추가적인 논문을 통해 〈천상열차분야지도〉를 거듭 소개했다.<sup>14)</sup> 그는 더 이상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천문도의 유래에 대해 그의 첫 연구에서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루퍼스는 저서 *Korean astronomy*에서 단군과 관련된 마니산의 참성단부터 시작해 한국의 천문학사를 전체적으로 간략히 다룬 바 있다. 그는 고구려의 천문학에 대한 장에서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다시 다루면서 그 전체적인 내용이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통해 당시 중국의 천문학 체계와 비교했다.<sup>15)</sup> 그가 미국인이었던 만큼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해

13) W. C. Rufus, 1913 앞의 논문, 37쪽. ; “No trace of the lost stone has been found. The Tai-tong Ya-sung 大東野乘 Vol.5, p. 219, quoting the Yang-chon-to-sul 陽村圖說 says that the old stone was sunk in the river and lost at the time of the war when Ko-gu-ryu 高句麗 fell, 672 A.D.” 루퍼스가 고구려 멸망 연도를 서기 672년으로 제시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고구려 멸망 연도를 착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14) W. C. Rufus, 1915 “Korea's Cherished Astronomical Chart” *Popular astronomy* 23(4). ; W. C. Rufus and Celia Chao, 1944 “A Korean Star map” *Isis* 35(4)

15) W. C. Rufus, 1936 *Korean astronomy*, Seoul : The Bravch, 11쪽. ; “..Although many observations are credited to Koguryu we have found no trace of an observatory. The most valued astronomical possession of that

당 천문도를 강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천상열차분야지도>를 고구려의 천문도로 규정하고 고구려 천문학에 대한 논의에서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다루는 구성은 이후 연구 경향의 원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유래에 대한 루퍼스의 설명은 뒤이은 여러 후속 연구에서 별달리 부정되거나 혹은 검토를 받지 않고 그대로 수용되었다. 우선 루퍼스의 연구가 해외 천문학 연구에 끼친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조지프 니덤(Joseph Needham)은 이러한 루퍼스의 연구를 중국의 과학문명에 대한 영향력 있는 연구인 *Science and Civilization in China*에 인용함으로써 후속 연구에 큰 영향을 끼쳤다.<sup>16)</sup> 니덤은 구체적으로 《대동야승》이나 <양촌도설>과 같이 루퍼스가 인용한 책의 제목들을 언급하지는 않고 “According to the descriptions”라고 하여 그 출처를 모호하게 처리했다.<sup>17)</sup> 니덤의 연구는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유래에 관한 루퍼스의 주장이 별다른 검토 없이 그대로 인용되어 확산된 사례이다. 이후 니덤이 저술한 *The Hall of Heavenly Records*에서는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유래에 대해 서술하면서 설명의 방식이 바뀌었다. 니덤은 루퍼스의 연구를 인용해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모본이 고구려의 천문도이며 고구려가 멸망하는 순간 대동강에 빠졌다고 하면서 그 내용의 사료적 근거가 “오랜 구전(According to an old tradition)”이라고 언급했다.<sup>18)</sup> 또한 그 인본이 전해지는 과정에 대해서도 “원 석본의 관찰은 탁

---

kingdom was the chart engraved in stone and presented to the king by the Emperor of China. The Tai-tong-ya-seung 大東野乘, vol. 5, p. 219, quoting the Yang-chon-to-sul 陽村圖說, says the stone was sunk in the Tai-tong river and lost at the time of the attack when Koguryu fell. The main part of its contents are preserved on the Celestial Planisphere of King Yi Tai-jo...” 그는 조선의 천문학에 대한 장에서 <천상열차분야지도>의 구체적인 사항을 다시 다루었다. p. 24

16) 안상현, 2011 앞의 논문, 147쪽.

17) Joseph Needham, 1954 *Science and Civilization in China vol 3*,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56쪽. ; “According to the descriptions(Rufus (I,2) ; Rufus & Chao, I), it was based on an inscribed stele map dating from +672, and doubtless represents a somewhat order tradition than that of Su Sung... Rufus (I) has given a translation of the accompanying inscription, which includes a review of the ancient chinese cosmological theories...”



본을 가문에서 보관해온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이를 궁중에 바쳤다 (one of his subjects in whose family a good rubbing of the original stone had been preserved presented it to the court.)”고 묘사했다. 니덤의 사례는 루퍼스의 주장이 외국 학계에서 그대로 수용되고 오히려 더 구체화되어간 양상을 보여준다. 국내에서도 나일성의 연구에서 “새 왕조를 세운 이성계와 그의 개국 공신들에게는 국왕으로서의 이성계의 위상을 만들어 내는 일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런 상황에서 희소식이 왔는데 그 때까지 있으리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던 고구려의 천문도 석본의 인본이 나타난 것이다.”라는 식의 구체화 양상이 나타났는데, 니덤의 사례는 이와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sup>19)</sup>

루퍼스의 연구가 <천상열차분야지도>에 대한 학계의 이해에 미친 영향은 북한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도 <천상열차분야지도>와 관련해 루퍼스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북한 학계는 루퍼스의 주장을 수용하여 지금의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그 모본이었을 고구려의 천문도와 완전히 같은 수준의 천문학적 체계를 갖추었다고 단정 짓고 <고구려의 천문학 발전수준>이라는 목차 아래 고구려 시대 천문학을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sup>20)</sup> 특히 같은 연구에서 조선왕조가 “반민증적이며 관료적인 정권”이고 “사대굴종정책을 실시”했다고 비판하고 있음을 볼 때 이러한 구성은 북한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조선왕조를 우회해 그들의 수도인 평양에 도읍했던 고구려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고구려 천문도에서 기원했다는 주장은 미국인인 루퍼스의 연구를 기반으로 했다.<sup>21)</sup>

18) Joseph Needham, 2004 *The Hall of Heavenly Records : Korean astronomical instruments and clocks, 1380-1780*, Cambridge ;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79쪽.

19) 나일성, 2000 앞의 책. 82쪽.

20) 북한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저·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 저·한국과학사 편찬위원회 편저, 2001 《한국과학사》, 여강출판사.

21) 루퍼스가 미국인이기 때문인지 그의 이름이 주석에 달리지는 않았지만 루퍼스가 고구려의 멸망시기를 672년으로 착각했던 것과 동일하게 672년에 고구려 천문도가 대동강에 빠졌다고 기술했다. 이를 볼 때 이들이 루퍼스가 만들어낸 고구려

국내에서 이루어진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유래에 대한 연구 역시 위의 해외 연구와 마찬가지로 루퍼스의 주장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여기에서 가장 시기적으로 앞섰던 인물은 홍이섭이었다. 홍이섭은 《조선과학사》의 삼국시대 천문학을 다루는 장에서 신라에도 천문도가 전해졌으니 선진국이었던 고구려도 인접한 중국에서 천문도를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고구려의 천문도가 존재했다는 근거로 《해동잡록》의 내용을 제시했다.<sup>22)</sup> 《조선과학사》의 참고문헌을 확인해 보면 홍이섭이 루퍼스의 *Astronomy in Korea (= Korean Astronomy)*를 참고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과학사》에서는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원본 천문도가 고구려의 것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루퍼스가 고구려의 천문학을 설명하며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제시하고 그 근거로 《해동잡록》을 언급했던 구성을 충실하게 따랐다.

홍이섭 이후 <천상열차분야지도>에 대해 다룬 국내의 대표적인 인물은 전상운이다. 전상운은 《한국과학기술사》 중 삼국시대의 천문도에 관한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天文圖는 王朝의 權威의 表象으로, 古代王朝는 天體觀測 結果를 규격화하여 天文儀象으로서의 星圖를 作成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高句麗가 天文圖를 石刻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現存하는 李朝 太祖 4년 (1395)의 天文圖石本에 權近이 쓴 天文圖詩에 의하여 알려지고 있는데, 高句麗의 天文圖石本은 高句麗가 亡할 때 戰亂에 의하여 大同江물에 빠져버렸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印本 한 장이 남아 李朝에 의하여 계승되었는데 그 星圖에 그려진 星數는 1463星으로 中國 三國 (221~238)의 三家星圖에 나타난 283座 1464星과 일치한다. 따라서 高句麗의 天文圖는 中國의 三國末에서 晉初(3世紀 후반) 때의 天文學者 陳卓의 283官 1464星의 星圖가 傳來하여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A.D 3世紀 이후에 제작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

기원설을 제대로 된 검토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석에서 “《해동잡록》 6. 《양촌선생문집》 22권 천문도지 천상열차분야지도”라고 그 출처를 언급했지만 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2) 홍이섭, 1944 《朝鮮科學史》, 三省堂出版創立事務所. 62쪽.

肉眼으로 보이는 거의 전부의 별들이 망라되었다.<sup>23)</sup>

여기에서 그는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유래를 고구려의 천문도 석본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체제가 고구려 시대에도 같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제작시기 추정의 상한을 잡고 있다. 그가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기존 연구를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개정판에서는 루퍼스와 니덤의 연구를 주석에 달아놓았다.<sup>24)</sup> 이어서 그는 이 고구려 천문도의 인본이 고려에 전해지고 이것을 다시 그려서 〈천상열차분야지도〉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고구려에서 기원했다는 식의 이해와 이것을 삼국시대의 천문학에 관한 서술에 포함시켜 기술한 방식은 루퍼스의 *Korean Astronomy*와 동일하다. 그렇지만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유래를 다루는 과정에서 〈양춘도설〉이 아닌 〈천문도시(天文圖詩)〉를 주요 근거로 제시함으로써 루퍼스와 약간 다른 방식의 설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25)</sup>

1966년에 출간된 전상운의 《한국과학기술사》는 한국 과학사를 대표하는 연구업적으로 인정받아왔다.<sup>26)</sup> 또한 전상운은 이후 뉴욕 주립대학 과학사학과 및 하버드 옌칭 연구소, 교토대학 인문과학연구소 과학사연구실에서의 연구를 거쳐 74년에 자신의 연구를 영문판으로 다시 냈는데 이것이 루퍼스의 주장을 수용한 전상운의 연구가 전파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니덤의 *The Hall of Heavenly Records* 에서 전상운의 저서인 *Science and technology in korea*를 다수 인용하고 있는 것에서도 전상운의 연구가 한국 과학사에서 가진 영향력을 볼 수 있다. 전상운의 연구는 이후 국내에서의 〈천상열차분야지도〉에 대한 이해의 기반이 되었다.

---

23) 전상운, 1966 《韓國科學技術史》, 科學世界社, 45쪽. ; 그는 그 출처를 〈天文圖誌〉가 아닌 〈天文圖詩〉라고 설명했다.

24) 전상운, 1976 《韓國科學技術史》, 正音社, 40쪽.

25) 전상운은 권근의 기록을 천문도시(天文圖誌)가 아닌 천문도시(天文圖詩)라고 표현했다. 이는 그가 《양춘집》의 어느 판본을 참조했는지, 그리고 이후의 연구들이 무엇을 참고했는지에 대한 단서가 된다.

26) 김영식, 1996 〈출간 30년 후에 읽는 全相運, 《韓國科學技術史》〉 《한국과학사학회지》 18, 196쪽.

전상운이 《한국과학기술사》에서 〈천상열차분야지도〉에 대해 다시 소개한 뒤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방향에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천문도의 유래가 고구려의 천문도였다는 루퍼스의 주장은 별다른 반박을 받지 않은 채 그대로 이어졌다. 루퍼스의 고구려 기원설은 하나의 주장이었으나 상식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아예 주석도 달리지 않고 일반적인 사실을 언급하듯이 제시되었다.

루퍼스의 주장이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점은 두 가지이다. 우선 첫 번째로 기존 연구는 루퍼스의 다른 주장에 반박을 하는 경우에도 고구려 천문도에서 유래했다고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반박을 하지 않았다. 루퍼스는 자신의 연구에서 당나라가 승려 도증(道證)을 통해 신라의 효소왕에게 천문도를 보냈다는 기록을 근거로 사라진 평양의 천문도가 당나라로부터 고구려에 전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sup>27)</sup> 이에 대해서 박창범, 유경로는 강하게 반박했다.<sup>28)</sup> 특히 유경로는 여기에 대해 도증의 신라 귀국이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인 692년이라는 점과 고구려가 수나라와 국운을 걸고 전쟁을 했고 당나라가 건국된 618년 이후에도 당과 전쟁을 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망각하고 내린 추측이라고 비판했다. 니덤과 중국 학자 판나이(潘鼐)는 모두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모본인 “고구려 천문도”가 중국에서 전래되었다는 루퍼스의 주장을 수용했는데 유경로는 이에 대해 근거 없이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원본을 중국 황제의 하사품으로 비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sup>29)</sup> 이를 통해 루퍼스, 그리고 그를 인용한 니덤과 판나이가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모본이 중국 천문도가 전래되어 만들어졌다고 한 주장에 대해 국내 연구에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들 연구는 루퍼스의 핵심적인 주장인 〈천상열차분야지도〉의 고구려 기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문을 표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흥미로운 점은 루퍼스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도 그가 주장

27) W. C. Rufus, 1913 앞의 논문, 63쪽.

28) 박창범, 2002 《하늘에 새긴 우리역사》, 김영사, 113-114쪽.

29) 한국 천문학사 편찬위원회 편, 1999 《한국 천문학사 연구 : 소남 유경로 선생 유고논문집》, 녹두, 276·284쪽.

했던 근거가 아닌 다른 근거를 통해 그의 주장을 설명하려 했다는 점이다. 머리말에서 이야기했듯이 <천상열차분야지도>에 석각되어 있는 명문과 <천문도지>에는 고구려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루퍼스가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모본을 고구려의 천문도로 주장한 핵심적인 근거는 분명히 《대동야승》의 <양춘도설>이었다. 그런데 전상운 이후 국내에서 이루어진 다수의 연구는 <양춘도설>이 아닌 <천문도지>가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고구려의 천문도에서 유래했다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인식했다. 전상운의 연구가 여기에서 가장 선두였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그는 《대동야승》이 아닌 권근의 <천문도지>가 직접적으로 고구려 천문도 석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했다. <천상열차분야지도>에 대한 기존 여러 연구에서 고구려 기원설에 대해 특별히 주석을 달지 않았기 때문에 확증할 수는 없지만 주장의 근거가 뒤바뀐 것은 전상운 식의 이해가 널리 받아들여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구체적인 양상을 보면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고구려의 석각 천문도를 본 따 만들었다고 “본도(本圖)의 도설”에 기록되어 있다고 설명하거나 아니면 “태조 석각본의 도설에 따르면” 옛 고구려의 석각본을 개정해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석각했다고 설명하는 식이었다.<sup>30)</sup>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식의 서술에 별다른 주석을 달지도 않았고 <천문도지>에서 나타나 있는 ‘평양’과 ‘고구려’가 가지는 의미상의 연관관계, 그 상징성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제시하지 않았다. 비교적 최근에 발간된 문중양의 저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서는 권근의 도설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석으로 “그러한 천문도가 고구려 때 존재했던 천문도를 근간으로 제작되었다는 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역사학자들이 이 인용문에 근거해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원본이 고구려에서 만들어진 고대 천문도라고 이해했다고 서술했다.<sup>31)</sup>

권근이 저술한 <천문도지>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그런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며 기존 연구는 그렇게 이해한 권근의 글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를 문제

30) 박명순, 1995 앞의 논문, 5쪽. ; 박창범, 1998 앞의 논문, 115쪽.

31) 문중양, 2006 《우리역사 과학기행》, 동아시아, 56쪽.

삼고 그런 식의 해석 자체가 문제가 있는지는 살피지 않았다. 구만옥은 비교적 최근에 <천상열차분야지도>에 대한 학계의 여러 논쟁을 정리한 바 있다. 그는 여기에서 태조본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양쪽 면의 상호 관계, 실록에 기록된 세종대 석각 천문도와와의 관련성, 별자리 관측 연대, 천문도 보관 장소 등의 문제에 대한 기존의 논쟁을 정리하고 몇 가지 새로운 사실들을 밝혔다. 그러나 여기에서 정리된 논점들을 살펴보다도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고구려의 천문도에서 유래했다는 주장 자체와 거기에서 확장하여 권근의 도설이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고구려의 천문도에서 유래했음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인식은 논쟁의 대상으로 포함되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만옥 본인 역시 “논의의 초점은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별자리 그림이 권근이 시문에서 말한 것처럼 고구려 천문도를 토대로 조선 초에 당시의 실정에 맞게 개정한 것인가, 별자리의 개정이 있었다면 그것은 전체적인 것인가 아니면 부분적인 것인가에 맞춰졌다.”라고 하여 그가 기존 연구와 전혀 다르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32)</sup>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유래에 관한 이러한 식의 서술은 대중서로 가면서 더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우선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고구려에서 기원했다는 주장이 당연한 상식으로 과학사 관련 서적에서 제시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천문도지>에 대한 전상운 식의 이해를 강화하는 형태로 <천문도지>의 내용을 다르게 전달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전상운은 최근에 펴낸 자신의 대중서에서 천문도의 유래가 《양춘집》에 전해진 다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조선 초에 고구려가 망할 때 천문도 석각본이 전란에 의하여 대동강 물에 빠져버렸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었다. 그런데 고구려 천문도 석각본의 인본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고려에 계승되었다. 조선 왕조를 세운 태조는 즉위하자마자 새로운 천문도를 갖기 염원했다. 그런데 태조가 즉위하고

32) 특히 권근의 글이 결코 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권근의 글을 <천문도지>라고 제시한 전상운 계열의 이해를 수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구만옥, 2007 앞의 논문, 98쪽.

얼마 안 되어 그 인본을 바치는 사람이 있어 태조는 그것을 중각하게 하였다. 그러나 서운관에서는 그 연대가 오래되어 성도에 오차가 생겼으므로 새로운 관측에 따라 오차를 교정하여 새 천문도를 작성하기로 했다.<sup>33)</sup>

전상운은 저서에서 해당 내용을 1차 사료를 인용하듯이 따로 문단을 띄워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천문도지>의 내용 자체를 바꿔버려 그 내용이 직접적으로 고구려를 지칭하고 있는 것처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전상운의 이러한 식의 서술은 이후 다른 대중서에 나타난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유래에 관한 서술의 모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약간의 표현 변화를 제외하면 전상운의 표현이 그대로 전제되었다.<sup>34)</sup> 또한 이 책은 일본어로 번역되어 일본에 출간되기도 했다.<sup>35)</sup>

기존 논의의 흐름은 루퍼스의 주장이 별다른 검토 없이 널리 수용되고 상식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일반 대중을 위한 서술에서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유래에 대해 왜곡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최초로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고구려의 천문도를 계승했다는 주장의 근거였던 <양촌도설>의 내용은 재검토를 받지도 않고 아예 근거였다는 사실조차 잊힌 채로 그 주장만이 재생산되었다. 또한 이상의 연구는 평양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천문도 석본이 고구려의 천문도라는 전제 아래 그 인본이 조선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수정되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 만들어졌을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양자의 내용을 동일시했다. 이를 통해 그 ‘인본’을 매개로 고구려의 천문학과 조선의 천문학을 연결시켰다.

한편, 전상운 식의 이해와 다른 방식의 설명도 존재한다. 국내에서 루퍼스의 연구를 수용해 최초로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다룬 홍이섭은 전상운처럼 <천문도지>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고구려 기원설을 의미한다고 보지 않았다. 고구려 천문학에 대한 논의에서 루퍼스가 주요 근거로 활용

33) 전상운, 2000 앞의 책, 58쪽.

34) 정인경, 2007 《(청소년을 위한)한국과학사 : '비과형 동검'에서 '반도체'까지》, 두리미디어, 84쪽. ; 박상표, 2008 《조선의 과학기술》, 현암사, 226쪽.

35) 전상운, 2005 《韓國科學史 : 技術的傳統の再照明》, 日本評論社.

한 《해동잡록》의 내용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가 루퍼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근거로는 《해동잡록》의 내용을 인용했지 〈천문도지〉를 인용하지 않았다. 〈천문도지〉의 내용에 대한 전상운식의 해석을 직접적으로 의심한 경우도 있다. 신동원의 주도로 만들어진 《우리 과학의 수수께끼》에서는 권근의 설명에 대해 “‘오래전’과 ‘평양성’이라는 말만으로는 이 천문도가 흔히 알려진 바와 같이 원래 고구려 때 것임을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하며 정면으로 의문을 제기했다.<sup>36)</sup> 이 지적은 기존의 연구 경향과 비교했을 때 매우 특징적이나 이 경우에도 처음 고구려 기원설이 만들어진 과정을 탐구하지는 않았으며 결국 〈천상열차분야지도〉에 대한 박창범의 연구를 그대로 수용하여 기존의 주장을 긍정하는 서술을 되풀이했다.

이러한 기존 연구 흐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안상현이다. 안상현의 연구는 〈천문도지〉에서 직접적으로 고구려 기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동시에 그는 태조본 석각 〈천상열차분야지도〉에서 건성(建星)이라고 되어 있어야 할 별자리 이름이 입성(立星)이라고 새겨져 있음에 주목했다. 그리고 고려시대 피휘법에 대한 연구를 인용해 이것이 왕건의 이름을 피휘한 것으로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모본이 되는 천문도가 고구려가 아닌 고려시대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제시했다.<sup>37)</sup> 또한 그는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도설들에 대한 문헌학적 고찰을 통해 11세기에 작성된 글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혀냄으로써 도설이 적어도 12세기 이후에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sup>38)</sup>

머리말에서 언급했듯이 안상현의 연구는 본격적인 논쟁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 원인으로는 우선 루퍼스로부터 시작된 고구려 기원설이 그만큼 학계에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는 안상현의 연구가 가지는 한계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안상현의 연구는 고구려 기원설을 근본적으로 부정하지는 못했다. 그의 연구는 결과적으로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모본이라고 기록된 인본(印本)이 고려시대에

36) 신동원, 2007 《우리 과학의 수수께끼》 2, 한겨레, 67-68쪽.

37) 안상현, 2011 앞의 논문. 144-150쪽.

38) 안상현, 2013 앞의 논문, 27쪽.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제시했을 뿐이다. 그는 〈천문도지〉에 나타난 옛 평양성의 천문도 석본이 인본(印本)과 동일하게 건성을 입성(立星)으로 표현했을 것이라고 보았고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천문학 상수와 도설들이 인본 및 석본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었으리라 보았다. 그렇지만 인본이 탁본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수많은 필사본들이 석본과 완전히 같은 체제와 구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분석은 한계를 가진다. 이런 이유로 그의 연구에서는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최초 모태가 되는 천문도에 대해 충분히 다룰 수 없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의 연구만으로 고구려 기원설이 완전히 부정될 수는 없었다.

## 二. 고구려 기원설의 문제점

### 1. 문헌근거의 문제

여기에서는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유래에 대한 기존 이해의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루퍼스가 처음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모본이 고구려 천문도라고 주장하면서 부연한 근거는 《대동야승》의 <양촌도설>이었다. 《대동야승》은 다양한 야사를 집대성한 책으로 본래 사본이 규장각에 소장되어 오다가 일본 주도로 통감부 비고(統監府秘庫)로 이관된 다음 1909년에 조선고서간행회(朝鮮古書刊行會)에서 표점을 달아 72권 13책으로 간행되었다.<sup>39)</sup> 루퍼스가 참고한 권수 및 페이지수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루퍼스가 참고한 자료는 조선고서간행회에서 출간한 본이 분명하다. <양촌도설>은 《대동야승》에 포함된 《해동잡록(海東雜錄)》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17세기 인조대 권별(權鰲)이 저술한 왕조별 인물사전식 문헌설화집이다.<sup>40)</sup> 《대동야승》에 포함되어 있는 《해동잡록》은 원본과 비교해서 그 구성이 완전히 다르고 내용도 일부만을 수록하고 있으나 <양촌도설>만큼은 그대로 전재했다. <양촌도설>은 <천문도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글이다. 루퍼스는 해당 내용을 가져왔을 뿐 사료를 직접적으로 인용하지는 않았다. 아래는 <양촌도설>의 내용을 전부 인용한 것이다.

천문도의 석본은 옛날 평양성에 있었는데, 려계(麗季)에 병란으로 인해 강에 빠져 없어졌다. 국초에 한 본을 바치는 자가 있었으나 세월이 오래되어 별의 도수가 차이가 나니 다시 관측하여 지금 사중(四仲)의 저녁과 새벽의 중성(中星)을 정해 새 그림을 만들었으며 또한 새로 중성기 한편을 지어 올렸다.<sup>41)</sup>

39) 朝鮮古書刊行會, 1968 《大東野乘》, 서울대학교출판부.

40) 權鰲, 1986 《海東雜錄》, 太學社, 1986, (영인본) 2쪽.

41) 《大東野乘》 권 5 權近 「陽村圖說」; “天文圖石本 舊在平壤城 因麗季兵亂 沈于江而失之 國初有以一本 投進者 然歲久星度已差 更推步以定今四件 昏曉之中 勤

해당 내용은 몇 부분을 제외하면 <천문도지>의 내용을 그대로 요약하고 있다. 다만 그 유래에 대한 설명에서 석본이 유실된 원인을 ‘병란(兵亂)’이라고만 기술한 <천문도지>와 다르게 이를 ‘려계병란(麗季兵亂)’이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여기에서 ‘麗’는 고구려의 ‘려’자와 같은 글자이며 ‘季’는 말년, 말세의 의미를 가진다. 루퍼스가 구체적인 추론 과정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볼 때 그는 ‘려계(麗季)’를 고구려 말기를 가리키는 단어로 해석하고 그러한 해석에 따라 <천문도지>에도 나타나 있는 ‘병란’을 고구려 멸망 시기 나당연합군에 의한 평양성 공격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 이외에 루퍼스는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모본이 되었다는 평양성의 옛날 석본이 고구려의 천문도였다는 주장에 어떠한 다른 문헌적 근거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려계병란(麗季兵亂)’이라는 표현이 루퍼스가 만들어낸 고구려 기원설의 핵심적 문헌 근거라고 볼 수 있다.

루퍼스의 이러한 해석은 명백히 사료를 오독한 결과이다. 우선 《해동잡록》이 저술된 연대와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제작 시기가 200년이 넘는 시차를 가지므로 그 사료의 신빙성을 먼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때문에 설령 여기에서 고구려 말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다. 기록의 원본인 천문도에 석각된 도설이나 《양춘집》에는 해당 표현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특히 《동문선》에 수록되어 있는 <천문도지>에도 해당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춘집》의 이본에 전해지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의 《증보문헌비고》에 기록된 천문도의 유래에 관한 설명에도 해당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해동잡록》에 나타나 있는 표현의 출처가 무엇인지는 불분명하다. 이것이 《해동잡록》의 저자가 분명한 근거 없이 자신의 판단 아래 써넣은 표현이라고 할 경우 그 신빙성은 더욱 낮아진다. 그리고 설령 이러한 <양춘도설>의 사료로서의 약점을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루퍼스의 해석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려계(麗季)’는 고구려 말기가 아닌 고려 말기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안상현 역시 ‘려계’가 고려 말기라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것이

---

成新圖 又新修中星記一編以進”(서울대학교출판부 영인본 219쪽) 원본 《해동잡록》에는 해당 부분이 권 9에 실려있다.

루퍼스가 사료를 오독한 원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sup>42)</sup> ‘려계’의 의미는 조선시대에서 나타난 해당 표현의 쓰임을 살펴봄으로써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에 관한 명확한 정의가 중종 대에 내려진 바 있다. 중종이 상소에 나타난 ‘려계(麗季)’라는 표현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문자승정원에서는 답하길 “고려의 말기에 불교를 숭신하여 어지러워 망하는데 이르렀다는 뜻”이라고 답했다.<sup>43)</sup> ‘려계’가 고려 말기를 의미하는 것은 그 이전 시기의 기록에서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려계’가 실록에서 가장 먼저 쓰인 것은 태종 재위기 변계량이 지은 돈화문 누각의 중명이다. 여기에서도 ‘려계’는 고려말의 혼란함을 가리키는 의미로 이를 안정시킨 이성계의 공을 찬양하는 의도로 사용되었다.<sup>44)</sup> 이외에도 실록에서 ‘려계’가 여러 차례 쓰였으나 《해동잡록》이 저술된 17세기의 기록을 포함해 모두 고려 말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비록 조선시대에 만들어지긴 했지만 《고려사(高麗史)》에서도 그러하다. 《고려사》에는 ‘려계’라는 표현이 단 한번 등장하는데 그나마도 경상도 지리지에 있는 것으로 고려 말 행정구역의 변천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었다.<sup>45)</sup>

이러한 사실은 〈양춘도설〉이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유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고구려에 대한 언급이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를 핵심적인 근거로 이용하여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고구려의 천문도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한 루퍼스의 가설이 근거가 없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를 통해 루퍼스의 주장을 인용하거나 혹은 인용하지 않고도 그 주장에 그대로 동조한 이후 여러 후속 연구 역시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유래에 대해서 잘못된 서술을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머리말에서 제시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권근의 〈천문도지〉에는 어디에도 고구려에 대한 언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유

42) 다만 그는 麗季의 의미에 대해 문헌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안상현, 2011 앞의 논문, 146쪽.

43) 《중종실록》 중종 2년 1월 12일(병술) “夜二鼓 傳于政院曰 臺諫疏中 燕翼麗季等語 未審何意耶 回啓曰 燕翼 取詩所謂貽厥孫 疏以燕翼子之語 此言使恭敬之子孫 萬世安之之意也 麗季 言高麗之季 崇信佛教 以至於亂亡之意也”

44) 《태종실록》 태종 12년 9월 15일(정유)

45) 《고려사》 권 57 지 11 지리 2 경상도

래를 서술한 조선시대 기록들은 모두 천문도 석본이 평양성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고구려의 천문도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은 아무런 문헌적 근거가 없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 2. 천문학적 분석과 역사적 사실과의 괴리

<천상열차분야지도>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천문 관측 시기의 문제이다. 기존의 여러 연구는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유래가 고구려의 천문도라고 권근이 기록했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그리고 천문도가 고구려 시기에 만들어졌음을 입증함으로써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고구려의 천문도라는 이해를 뒷받침하고자 천문도의 도설에 나타나 있는 상수들 및 성도(星圖)를 분석하여 관측시기를 특정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연구는 관측시기에 대해 서로 다른 몇몇 추정치를 해내어 기원전 1세기에서 서기 6세기 정도까지 다양한 추정치를 제시했다.<sup>46)</sup>

비교적 늦은 시기에 이루어진 박명순과 박창범의 연구는 이제까지 있었던 다른 연구에서 나타난 관측시기 추정 방식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각각 기원전 50년에서 서기 100년 사이로 관측 시기를 추정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박창범의 연구이다. 그는 몇몇 별들의 위치 및 상수들만을 사용하는 추정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375개의 별들을 분석하는 통계적 방법을 사용했다. 또한 그는 이전 연구를 계승 발전시켜 <천상열차분야지도>의 관측 위도를 분석했다. 그는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주극원 바깥에 있는 별들이 서기 1세기경 평양이 위치한 북위 39도에서 40도 사이에서 관측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것이 <천상열차분

46) <천상열차분야지도>의 관측 연대를 추정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 W. C. Rufus, 1913 “The Celestial Planisphere of King Yi Tae Jo” *Transactions of Korean Branches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4(3) ; 박성환, 1986 <태조의 석각천문도와 숙종의 석각천문도의 비교> 《한국과학사학회지》 8(1). ; 박명순, 1995 <天象列次分野之圖에 대한 고찰> 《한국과학사학회지》 17(1). ; 박창범, 1998 <天象列次分野之圖의 별그림 분석> 《한국과학사학회지》 20(2).

야지도>가 고구려의 천문도에서 유래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sup>47)</sup> 박명순과 박창범의 연구는 관측위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관측 시기 뿐 아니라 관측 지점을 특정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는 이후 <천상열차분야지도>에 대한 후속 연구 및 대중서에서 자주 인용되며 큰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천문학적 분석에 의거한 연구 결과들에 대한 직접적인 검토는 본 글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그렇지만 위의 연구 결과를 수용했을 때 도출되는 역사적 결론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일단 박창범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더라도 과거 역사와 대조해 보았을 때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고구려의 천문자료를 기반으로 했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없다. 박명순과 박창범은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외곽선의 크기는 관측위도가 북위 34.3도였음을 나타내지만 천문도 외곽 원 근처에 별이 묘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는 도면 안쪽의 별들을 모두 포함하기 위해 약간 크게 그린 것 같으므로 실제 별들이 나타나는 위치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관측자의 위도는 북위 39도에서 40도라고 주장했다.<sup>48)</sup> 북위 39도는 평양을 관통해 지나며 북위 40도는 신의주 아래쪽을 지난다. 이 지역은 서기 4세기 이후라면 고구려의 영토가 맞지만 박창범 및 박명순 등이 주장하는 기원전 1세기에서 서기 1세기까지의 시기에는 낙랑군의 영토였다. 물론 고대사의 강역 문제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함부로 확신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동시에 고대 국가에서는 중심지의 위치가 더욱 중요하다. 천문관측과 같은 사업을 중심지가 아닌 곳에서, 인접국과 맞닿아 있는 접경지역에서 실시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이 시기는 고구려의 초기단계로 당시 고구려의 중심지는 평양이 아닌 길림성 집안 일대였다. 이 지역은 위도가 41도로 만약 이 시기에 고구려에서 천문을 관

---

47) 박창범, 1998 앞의 논문, 129쪽. ; 박창범은 해당 연구에서는 관측 위도에 관해 약 40도라고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몇 도로 산출되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자신의 저서에서 그는 39도에서 40도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박창범, 2002 앞의 책, 115쪽. ; 박창범, 2007 《(한국의 전통 과학)천문학》 이화여자 대학교 출판부, 46쪽.

48) 박명순은 38도에서 40도라고 주장했다. ; 박명순, 1995 앞의 논문, 37쪽. ; 박창범, 1998 앞의 책, 129쪽.

측했다면 그 관측 위도는 북위 41도 부근으로 나와야 합당하다. 낙랑군은 서기 313년이 되어서야 붕괴하고 고구려에 합병되었으며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한 것은 서기 427년의 일이었다. 따라서 박창범이 주장한 관측 위도와 관측 시기를 수용할 경우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모본이 되는 천문도의 관측은 고구려가 아닌 낙랑군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기존 연구는 이런 사항을 간과하고 박창범의 연구가 고구려 기원설을 분명하게 입증해 준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무엇보다 이러한 박명순과 박창범의 추론은 자의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다 이전 시기에 만들어진 중국의 <순우천문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곽선 바로 근처에는 천체가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외곽원의 크기가 실제보다 크게 그려졌다고 하더라도 관측 기준이 외곽원과 천체가 등장하는 사이 어떠한 임의의 지점인지는 알 수 없다.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박명순과 박창범의 연구에서 관측 외곽선을 성도(星圖) 안의 천체가 나타나는 위치로 설정한 이유는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모본이 고구려의 천문도라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명순과 박창범의 자의적인 관측위도 파악을 제외하고 천문도의 외곽선이 나타내는 위도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에는 관측위도가 약 북위 34도가 된다. 한반도에서 북위 34도는 남해바다 해상이다. 이는 오히려 중국의 수도였던 낙양, 장안의 위도와 일치한다. 근본적으로는 천구를 평면에 투영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성도의 외곽원 부분에 심한 왜곡이 발생함에도 천문도의 외곽선을 통한 관측위도의 계산 자체가 의미가 있는지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무시하고 그대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외곽 부분의 관측 위도는 중국 수도의 위도이다. 성도 외곽선을 기준으로 한 관측위도 계산을 인정한다면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외곽 부분에 묘사된 천체는 중국 수도에서 관측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낙랑군을 거쳐 고구려로 유입되었을 수도 있으나 이렇다면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모본이 고구려의 천문도라고 결론 내리기 어렵다. 천문도가 그려진 고구려의 무덤 벽화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서기 357년의 것인데<sup>49)</sup> 이 역시 낙랑군이 합병된 시기와

연관해서 생각해 볼만 하다.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체계 및 함께 제시되어 있는 도설들의 내용과 천문학적 상수들을 중국 천문학 체계 및 저서들의 내용과 비교함으로써 제작 연대를 추정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졌다. 한영호는 자신의 연구에서 천체의 관측은 오랜 시기에 걸쳐 이루어지면서 부분적 수정, 중보가 누적되며 천체의 좌표가 전제될 때마다 오차가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성도의 분석을 통한 천체의 관측 시기 특정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sup>49)</sup> 그는 〈천상열차분야지도〉가 석각되는 과정에서 성도 주변 천문학 상수들 및 도설들은 바뀌지 않고 중성기만 수정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를 중국 천문지들과 비교함으로써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모본 천문도가 고구려 보장왕 대에 만들어졌다고 보았다.<sup>50)</sup> 그 내용 다수가 648년에 완성된 《진서(晉書)》 천문지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천상열차분야지도〉와 같은 별자리 체계가 6세기 후반에 이르러 비로소 완성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러한 한영호의 연구는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모본 제작 시기를 추정하는데 상한선을 제시하는 것에는 유효하다. 그렇지만 이것은 제작시기 추정의 하한을 제시해 주지는 못한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영호가 고구려 보장왕 재위기로 “평양 석본”의 제작 시기를 특정한 것은 “평양 석본”이 고구려 천문도라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구려의 멸망시점을 제작시기 추정의 하한선으로 잡음으로써 이 시기를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제작시기 추정의 하한 설정은 위에서 언급한 천문 관측시기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이다. 그렇지만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고구려 천문도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은 아무런 문헌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가 〈천상열차분야지도〉의 고구려 기원설을 입증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연구들은 모두 그 이전 과학적 방법을 통한 연대 측정 연구들을 세세하게 분석하고 각 연구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렇지만 추정연대

49) 박창범, 2007 앞의 책, 44쪽.

50) 한영호, 2007 앞의 논문, 17-18쪽.

51) 한영호, 2007 앞의 논문, 13-15쪽.



의 역사전개에 대한 이해와 관측시기의 추정 하한 설정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와 같은 문제점을 보였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천문학적 분석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모본은 언제 제작된 것이라고 파악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모본이 고려의 천문도였다고 주장한 안상현의 연구를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천문도는 아직까지 전혀 발견된 바가 없다. 《고려사》에는 천문도와 관련된 기록이 두 건 나오지만<sup>52)</sup> 둘 다 천문도를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제작했다는 기록은 아니다. 그렇지만 고려시대에 국가 주도로 천문도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고려사》에는 일월식을 포함한 여러 천문, 기상현상들에 대한 관측기록이 나타나 있다. 현재 개성에는 고려시대의 첨성대 유적 또한 남아 있다. 고려는 국초부터 천문을 관장하는 관청을 두었으며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도 고려 멸망까지 그 제도가 존속했다.<sup>53)</sup>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고려에서 천문도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은 크다.<sup>54)</sup> 《고려사》에 그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천상열차분야지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천상열차분야지도>가 제작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인쇄하거나 혹은 숙종대 다시 석각한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을 뿐 태조대의 석각 사실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고려사를 알려주는 자료가 조선에 비해서 지극히 적다는 것을 고려할 때 고려시대에 천문도가 존재했더라도 기록에 남지 않았을 가능성은 크다.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모본이 현재 전하지 않는 고려시대의 천문도라고 가정했을 경우 <천상열차분야지도>에 대한 여러 논쟁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천상열차분야지도>에 관한 중요 논쟁 중 하나는 조선시대에 석각될 때 과연 모본인 성도(星圖)를 전면적으로 개정했느냐 하

52) 《고려사》 권41 세가41 공민왕 15년 9월 무인 ; 《고려사》 권105 열전18 「伍允孚」.

53) 한국 천문학사 편찬위원회 편, 1999 앞의 책, 10-11쪽.

54) 나일성, 2000 앞의 책, 79쪽.

는 점이다. 머리말에 제시한 권근의 글에서는 중성(中星)을 고친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을 뿐 성도의 전면적인 개정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천상열차분야지도>에 대한 기존의 천문학적인 연구들은 가운데 주극원의 크기를 통해 성도 중앙 부분의 관측 위도가 북위 38도라는 점을 밝혀냈다.<sup>55)</sup> 또한 천문도에 나타나 있는 주요 별자리의 모양을 해당 시기 별자리의 모양과 비교함으로써 이것이 고구려 시기보다 14세기의 별자리 모양에 가깝다고 주장하기도 했다.<sup>56)</sup> 이것이 중성(中星)에 대한 수정만을 기록한 <천문도지>의 내용과 어긋나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성도가 개정되었다고 본 기존 연구에서는 권근의 설명이 부족했다고 단정을 내렸다.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모본이 고구려의 천문도라고 가정하는 이상 천문도에 나타나 있는 14세기에 가까운 시기 북위 38도의 별자리 모습은 새로운 관측을 통해 대대적으로 개정한 결과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모본이 고려의 천문도라면 이를 다르게 파악할 수 있다. 모본이 개성에서 관측된 고려의 천문도일 경우 북위 38도에서 14세기 즈음에 관측되었다는 분석과 모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성(中星)을 수정했다고만 기록되어 있는 천문도의 명문과도 아무런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무엇보다 북위 38도가 개성의 위도와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양 경복궁의 위도는 약 37.5도인 반면 고려 궁궐이 있던 자리이자 고려시대 첨성대의 유적이 남아있는 개성 만월대의 위도는 38도이다. 기존 연구는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정밀함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다. 0.5도의 차이가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는 천문도 중앙부분의 관측위도가 한양보다는 개성의 위도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고려하면 중앙 부분의 관측위도는 조선 초 고구려 천문도가 개정된 흔적이 아니라 천문도의 모본이 처음부터 고려의 수도에서 관측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록 안상현의 연구가 한계를 가지지만 그 내용은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모본인 천문도의 인본(印本)이 고려시대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55) 박명순, 1995 앞의 논문, 37쪽. 박창범, 1998 앞의 논문, 129쪽.

56) 박명순, 1995, 앞의 논문, 32쪽. ; 박창범, 1998 앞의 논문, 124쪽.

는 것을 보여준다.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유래에 대해서 명쾌하게 기록하고 있는 자료가 전무하기 때문에 그 유래에 대한 탐구는 가능한 한 타당한 가설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고구려의 천문도에서 유래했다는 기존 주장의 근거가 부정된 이상 이것이 언제의 천문도를 모본으로 한 것인지는 완전한 추론의 영역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면에서 이것이 고려의 천문도에서 유래했다고 할 경우 기존 연구에서 실제 기록과 상충되던 부분들 및 지금까지 이루어진 여러 천문학적 분석들과 부합하게 된다. 무엇보다 성도 중앙 부분의 관측 위도가 고려의 수도와 같은 북위 38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천상열차분야지도>에 대한 기존의 천문학적 연구를 수용한다면 고대에 관측된 천문 관측 자료가 오랜 시간을 거쳐 고려에 전해졌으며 고려는 그 자료와 개성에서 수행한 천문 관측을 포함하여 새로 천문도를 제작했고 이것이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모본이 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고대의 천문관측 자료가 전래 과정에서 고구려를 거쳤을 수도 있겠지만 그에 대한 근거는 없다. 또한 고려라는 중간 단계가 있다는 점에서 설령 <천상열차분야지도>에 고대에 만들어진 관측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소급해서 이전 시기의 천문학을 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三. 천문도 기원으로서의 ‘평양’이 가지는 의미

#### 1. 〈천문도지〉라는 자료의 성격과 ‘평양’ 해석

이 절에서는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도설과 〈천문도지〉에서 언급하고 있는 ‘평양성’의 함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전상운의 연구를 시작으로 많은 기존 연구에서 ‘평양’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이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유래에 대한 잘못된 설명이 재생산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평양’의 의미를 명확하게 분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평양’이 곧 고구려 기원설을 의미한다고 파악했다. 논리 전개 과정을 추론해보면 루퍼스의 주장을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에서 ‘평양’이 곧 고구려를 의미한다고 해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해는 고구려가 멸망할 당시 수도가 평양이었기 때문에 구 천문도가 평양에 있었다는 표현에서 고구려를 바로 연상한 결과일 것이다. ‘평양’과 고구려의 연결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많은 연구에서 다루어왔기 때문에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유래에 대한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새로운 시각에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권근의 설명에서 언급한 평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평양 석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천문도지〉에서 언급한 ‘평양’이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천상열차분야지도〉가 어떠한 목적 아래에서 만들어진 유물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는 ‘평양’이 표현된 〈천문도지〉를 저술한 목적과 ‘평양’이 가지는 문맥상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게 해준다. 〈천상열차분야지도〉는 과학 유물이니 과학적인 접근을 해야만 한다는 식의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sup>57)</sup> 그렇지만 이는 지나치게 현대 천문학적인 관점으로 과거의 천문도라는 자료를 이해하는 태도이다. 전근대 동아시아에서 천문은 하늘의 객관적인 모습에 대한 과학적인 호기심의 측면에서 주목을 받은 것이 아

57) 한영호, 2007 앞의 논문, 29쪽.

니었다.<sup>58)</sup> 그렇기 때문에 천문도를 제작한 목적을 염두에 둔 역사학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의 중요한 부분이자 이 자체로 <천상열차분야지도>가 만들어지는 배경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다.

<천상열차분야지도>는 왕조의 정통성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천상열차분야지도>가 조선 초기 역법, 시계 제작 등에서 기준이 되었음을 고려하면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제작에서 실용적 목적이 있었음은 분명하다.<sup>59)</sup> 그렇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천상열차분야지도>에 담겨 있는 천체가 실제 현실의 그것과 크게 어긋나게 된 이후에도 천문도의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이것은 잊혀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인쇄해 배포되었다. <천상열차분야지도>가 실용적 목적과 무관하게 계속 사용된 이 사례는 천문도 제작에서 정치적 목적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고대 중국으로부터 뿌리 깊게 내려온 천인감응(天人感應)에 대한 믿음은 천문학을 제왕학과 깊은 연관을 맺게 했다. 중국의 천문 전통에서 군주는 독점적으로 하늘과 연결될 권리가 있었다. 그리고 이런 관념 아래에서 군주는 하늘의 운행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역법을 제작해 반포할 의무를 가졌다. 특히 이는 유교정치문화의 중요 요소였다. 천문학과 역법은 정통적이고 유교적인 과학이었다.<sup>60)</sup> 유교의 중요 경전인 《서경》에 요(堯)의 말로 천문의 중요성이 언급되기도 했다.

이 같은 천문의 의미는 <천상열차분야지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조선의 국왕은 명나라와의 국제적 관계라는 측면에서 제후국이었으며 스스로도 이를 자처했다. 그럼에도 조선의 군주가 하늘과 연결된, 천명을 받은 존재라는 의식은 분명했다. 비록 이후에 폐지되었지만 조선 초에는 국왕이 제천례를 행하기도 했다.<sup>61)</sup> 이는 조선 국왕이 하늘을 받드는 존재로서 관상수시의 이념을 실현해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58) 이문규, 2000 《고대 중국인이 바라본 하늘의 세계》, 문학과 지성사, 17쪽.

59) 문중양, 2004 <조선 후기 서양 천문도의 전래와 신, 고법 천문도의 절충> 《한국과학사학회지》 26, 31쪽.

60) Joseph Needham, 1954 앞의 책, 171쪽.

61) 박성래, 2012 《한국과학사상사》, 책과함께, 439-447쪽.

특히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는 상황에서 조선은 왕조교체를 정당화하고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하늘과 연결된 장치가 필요했다. 고려의 경우에도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그 시기에는 아직 유교 정치문화가 자리 잡지 못했으며 국가 성립 단계로 왕조의 권위가 강하지 않았다. 반면에 조선은 오랜 세월동안 이어온 왕조를 천명론을 바탕으로 한 역성혁명으로 뒤집었으며 이 시기에는 유교문화가 고도화되었고 무엇보다 건국 주도세력들이 성리학자들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군주의 위상을 유교적으로 정당화할 필요가 있었다. 천문은 이 과정에서 매우 유효한 수단이었다. 천문도의 제작은 새로 출범한 왕조가 하늘을 받들고 백성을 위할 것임을 공표하여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내고자 하는 정치적 이벤트였다.<sup>62)</sup>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제작이 새로운 왕조의 정통성과 관련해 가지는 의미는 그 유래를 밝히고 있는 <천문도지>의 내용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신 (권)근이 삼가 생각하니, 예로부터 제왕이 하늘을 받드는 정사는 역상(曆象)과 수시(授時)를 급선무로 삼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요는 회화에게 명해 사계절의 순서를 잡았고 순은 천문기구를 살펴 칠정(七政=해, 달과 오성(五星))을 분별했으니 진실로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 일에 부지런히 하는 것을 늦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성스런 무덕(武德)을 가지고 어질고 명철하시어 선양(禪讓)으로써 나라를 소유해 안팎이 화락하여 태평함에 이르렀으니 이는 곧 요순의 덕이고 먼저 천문을 살펴 그로써 중성을 바르게 하셨으니 이는 곧 요순의 정사입니다. 요, 순이 천문을 관측하고 기구를 창제했던 마음을 보면 그 근본은 다만 공경함에 있을 뿐입니다. 생각건대 전하께서 또한 공경함을 마음에 보전하여 위로는 천시(天時)를 받들고 아래로는 백성 일에 부지런히 하시면 신령한 공덕이 융성하여 이제(二帝)만큼 높아질 것입니다. 하물며 이 그림을 좋은 옥돌에 새겼으니 길이 자손만대의 보배일 것을 믿습니다.<sup>63)</sup>

62) 문중양, 2004 앞의 논문, 31-34쪽.

63) 권근 《天文圖誌》：“臣近竊惟 自古帝王奉天之政 莫不以曆象授時爲先務 堯命羲和而秩四時 舜在璣衡而齊七政 誠以敬天勤民爲不可緩也 恭惟殿下 聖武仁明 以禪讓而有國 中外晏然 躋于太「大」平 卽堯舜之德也 首察天文以正中星 卽堯舜之政也 然求堯舜所以觀象制器之心 其本只在乎欽而已 「恭」惟殿下 亦以欽存諸心 上以奉天

이 글에는 <천상열차분야지도>를 통해 왕조 교체를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나타나 있다. 권근은 관상수시가 제왕의 업무임을 강조하고 유교의 성인인 요, 순도 행한 일이었음을 언급했다. 그리고 이성계를 요, 순과 동급으로 놓으면서 그의 등극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 같은 도설의 내용은 천문도 제작의 주된 목표가 이성계의 역성혁명을 합리화하는 데 있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태조의 건국 과정을 어떻게 정의했는가 하는 점이다. 권근은 이성계가 선양으로써 나라를 소유했다(以禪讓而有國)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본문에서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시한 성인이 요와 순이었다는 점과 관련된다. 요의 선양은 유교문화에서 왕조 교체의 아름다운 사례로 여겨졌다. 부덕한 군주를 끌어내리는 역성혁명에 대해 논한 맹자 역시 선양을 중요하게 다뤘다. 여기에서 요순을 언급하며 이성계의 즉위를 선양이라는 표현을 통해 묘사한 것은 고려-조선의 왕조교체를 요순의 그것에 견줄으로써 유교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함이다. <천문도지>의 내용은 천문도의 제작을 통해 이성계를 요순에 연결시킴으로써 그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는 실제 조선왕조 성립과정의 역사적 전개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고려의 마지막 왕이었던 공양왕은 이성계에서 선양을 하지 않았다. 당시 우시중이었던 배극렴이 왕대비의 교서를 받아냄으로써 공양왕은 폐위되었다.<sup>64)</sup> 왕위가 비어 있는 상황에서 조정 신료들이 왕에 오르기를 원하는 과정을 통해 이성계가 왕위에 등극했다.<sup>65)</sup> 이 과정에서는 유교적 예식으로서의 ‘선양’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형식적으로라도 고려의 왕이 왕위를 양보하거나 스스로 물러나는 형태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성계는 신하와 백성들에 의해 ‘추대’되었다. 이는 이성계의 즉위 교서를 비롯한 조정의 여러 논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표현된다.<sup>66)</sup> 본래 조선의

---

時 下以勤民事 則神功茂烈 亦當與二帝並隆矣 況此圖勒貞珉 永爲子孫萬世之寶也 信矣哉”(「」안의 글자는 동문선 표기)

64) 《고려사》 권 46 세가46 공양왕 4년 7월 신묘.

65) 《태조실록》 태조 1년 7월 17일(병신).

66) 오수창, 2012 <조선후기 체제인식과 민중운동 試論> 《韓國文化》 60, 257-258 쪽. ; 오수창, 2015 <정조와 『일성록』 - 연구방법 제안-> 《한국 고전번역 50년

건국 세력은 고려 왕조가 공민왕의 죽음과 함께 실질적으로 끝났다고 보고 공양왕은 정식 왕이 아닌 국사를 임시로 담당했던 인물로 간주했다. 공양왕은 어디까지나 임시로 맡던 직무를 대비의 교서에 따라 그만두었을 뿐이다.<sup>67)</sup> 권근은 바로 이 시기의 인물로 고려 말 관직을 잃었으나 왕조 교체 후 곧 출사했던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왕조교체의 과정이 선양의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최소한 이 천문도를 보고 그 유래에 대한 설명을 읽었을 조정의 신료들이 알지 못했으리라고 생각하기도 어렵다.

고려와 조선의 왕조 교체과정을 ‘선양’이라는 표현을 통해 묘사하는 것은 조선의 건국세력들이 자신들의 권력 장악을 정당화했던 방식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천문도지〉가 지어진 의도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권근의 글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기보다 조선의 정통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쓰여졌다. 즉, 〈천문도지〉에서 나타나는 유래에 관한 서술들은 모두 정통성 강화라는 목적에 맞추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양’이라는 표현은 〈천문도지〉의 내용이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천문도지〉에 나타나 있는 평양 관련 서술은 〈천상열차분야지도〉와 같이 왕조의 정통성과 관련된 중요한 물품의 유래에 대한 설명이라기에는 지나치게 표현이 애매하다. 이미 천문도의 인본을 보존하는 자까지 다 없어졌다고 한 다음 누군가가 다시 그것을 바쳤다고만 되어있고 인본을 바친 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았다. 조선의 건국세력들은 새로운 왕조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고려 왕조를 역사상의 존재로 만들어 왕조교체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건국 직후부터 고려사를 정리한 사서들을 편찬했다.<sup>68)</sup> 이 역시 사실을 지나치게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왕조 초기 정통성 확립을 위한 일련의 움직임에서 사실의 정확한 전달에는 큰 비중이 두어지지 않았다.

기념 학술대회 발표문》, 23-24쪽.

67) 《태조실록》 태조 1년 7월 17일(병신). ; “此天以王位命公之時 而公謙讓不居 推戴定昌府院君 權署國事”.

68) 남지대, 1991 〈조선전기의 역사의식〉 《한국사상사대계》 4, 韓國精神文化研究院, 56-57쪽.



권근이 서술한 ‘평양성’ 역시 그러한 목적에 유의해 살펴봐야 한다. <천상열차분야지도>는 고려의 천문도를 “직접적인” 모본으로 하여 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평양’은 무엇일까? 평양에 실제로 천문도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sup>69)</sup> <순우천문도>가 남송의 수도였던 임안이 아닌 소주의 공묘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볼 수 있듯이 수도가 아닌 곳에 천문도가 설치되는 일 자체는 이상하지 않다. 그렇지만 고려의 천문도가 평양에만 있지도 않았을 텐데 어째서 굳이 평양의 천문도를 언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혹은 위에서 말한 선양이라는 왜곡된 표현을 감안했을 때 평양에 석각 천문도가 있었다는 서술 자체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가능성 또한 있다.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유래에 대한 서술은 매우 모호하게 처리되어 있다. 어느 쪽이든 천문도의 유래를 설명하면서 평양을 언급한 것은 조선왕조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한 제작자들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파악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려라는 존재를 우회하여 조선왕조의 정통성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sup>70)</sup>

수도는 한 나라의 중심이자 상징이다. <천문도지>의 ‘평양’ 역시 평양을 수도로 했던 과거 정치체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평양을 점유했던 정치체는 여럿이었다. 각 시대, 각 정권에 따라 과거 평양을 점유했던 정치체들에 대한 인식은 바뀌어 왔으며 이에 따라 평양이라는 지역이 가지는 상징성과 함의 역시 달라졌다. 권근의 <천문도지>에서 바로 고구려 기원을 떠올린 기존 연구는 평양을 고구려의 상징으로 해석해냈다. 그렇지만 <천문도지>라는 글의 성격, 그리고 여

69) 안상현은 이에 대해 평양은 고려시대의 부수도로서 각종 분사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여기에 천문을 담당하는 태사국의 분사가 존재했다는 것을 통해 평양에 고려의 석각 천문도가 있었을 것으로 파악했다. 그리고 이것이 고려 말 홍건적의 침입으로 평양이 함락되었을 때 대동강에 빠졌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것은 권근의 설명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한 것이라고 이해한 것이다. ; 안상현, 2011 앞의 책, 150쪽.

70) 문중양의 경우에는 옛 석본 천문도가 평양에 존재했다고 쓰여 있는 기록의 진실성을 의심했다. 그러면서 이 표현에 대해 조선왕조의 건국세력이 왕조의 정통성을 고구려에 연결시킴으로써 고구려가 하늘로부터 받은 천명을 조선이 계승했음을 표방하려 했다고 풀이했다. 이는 ‘평양’이 고구려 기원을 의미한다는 전제 아래 그 의미를 풀이한 것이다. 문중양, 2006 앞의 책, 91쪽.

말선초 천문도가 제작되던 시기 지식인들의 인식을 보았을 때 〈천문도지〉에서 이야기하는 평양은 다르게 해석해야만 한다.

도설에 나타난 ‘평양’의 의미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물이 있다. 조선 영조 재위기 만들어진 복합식 병풍천문도는 〈천상열차분야지도〉와 서양식 신법 천문도를 함께 그린 천문도이다. 여기에는 〈천상열차분야지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는 본관이 소장하고 있는 석각본이다. 태조 조에 기성(箕城=평양)본을 바치는 이가 있었다. 임금께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돌에 새기도록 본관에 명했다.<sup>71)</sup>

이를 보면 평양이 기성(箕城)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식의 서술은 《증보문헌비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태조께서 천명을 받으신 초기에 기도(箕都=평양)의 옛 천문도를 바친 사람이 있었다. 서운관에서 아뢰기를, “이 그림은 세월이 오래 되어서 별의 도수에 차가 생겼으므로, 마땅히 다시 관측하여 중월(仲月)의 저녁과 새벽의 중성을 정해야 합니다.” 하여, 임금이 허락하였다.<sup>72)</sup>

여기에서도 평양이 기도(箕都)라고 표현되어 있다. 기성, 기도는 평양을 기자와 연결시키는 표현이다. 여기에서는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유래에 대해 〈천문도지〉와 비교해 더 구체적인 정보는 담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다른 내용은 그대로 요약해 옮겨오면서 원본의 ‘평양’만을 기성/기도로 바꾸어 기술했음은 주목할 만하다. 현대 천문학자들이 ‘평양’에서 고구려를 연상했던 것과 다르게 복합식 병풍천문도와 《증보문헌비고》가 만들어지던 18세기의 조선인들은 〈천문도지〉에 나타나 있는 ‘평양’을 기

71) “此本觀所藏石刻本也 太祖祖有以箕城本進 上寶重之 命觀刻于石” 영국 휘플박물관(Whipple Museum of the History of Science) 소장본 복합식 병풍천문도; 나일성, 2000 앞의 책, 98쪽에서 재인용

72) 《增補文獻備考》 〈象緯考〉 中星조 ; “太祖受命之初有箕都舊本天文圖獻者書雲觀奏此圖歲久星度已差 宜更推步定仲昏曉之中上可之”

자와 연결시켜 이해하고 있었다. 그렇게 해석을 했을 때 여기에 나타난 표현은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원본이 되는 천문도가 기자의 전통 아래에 있는 듯 한 인상을 주게 된다.

물론 평양이 기성이라고 불린 것은 드물지 않았다. 이는 관용적 표현으로 기자와 관계없는 사항을 기술할 때에도 많이 활용된 표현이다. 무엇보다 위 기록들이 만들어진 시기는 <천상열차분야지도>가 제작되던 당시와 커다란 시간적 격차가 있다. 따라서 위의 사례는 조선 후기 <천상열차분야지도>가 어떠한 식으로 이해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지만 그 자체로 천문도가 만들어지던 시기 도설의 의도와 평양의 의미를 확증해주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평양’이 가진 상징성에 대한 단서가 된다.

## 2. 여말선초의 ‘평양’ 인식

평양이 어떠한 함의를 갖느냐에 대한 이해는 해당 내용에 대한 해석에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권근이 <천문도지>에서 말한 ‘평양’이 어떠한 의미인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접근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평양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과거 평양을 점유했던 정치체들에 대해서 당대인들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계승의식에 대한 분석은 유효하다. 계승의식은 스스로에 대한 규정으로 정통성의 근본이 된다. <천상열차분야지도>가 만들어지던 시기 지식인들의 역사적 계승의식은 <천문도지>의 저자가 ‘평양’을 쓰면서 염두에 두었던 함의, 그리고 당대 독자들이 그 표현을 읽으면서 머리에 떠올릴 함의를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계승의식에 대한 이해는 <천문도지>의 내용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고려왕조에서 고구려 계승을 표방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고구려의 시조로 인식되던 동명왕에게 제사를 지냈을 뿐만 아니라 거란과의 전쟁

에서 서희가 자국이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임을 확실하게 언급하기도 했다. 고려의 태조인 왕건 대부터 시작된 서경(西京) 중시 역시 고구려 계승의식과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고려라는 명칭부터가 고구려의 국명을 그대로 따온 것으로 고려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비록 고려에서 고려가 과연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인지, 신라를 계승한 국가인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대립이 있었고 시대별로 계승의식의 방향이 변화해갔지만 자국의 역사전통을 삼국시대 이전으로 소급하려는 움직임은 적었다.<sup>73)</sup> 1146년에 저술된 삼국사기 역시 기자를 언급하고 있으면서도 기자에서 위만에 이르는 시기는 다루지 않았다. 자연히 이 시기에는 평양에 대해 현대 연구자들이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고구려라는 상징성을 부가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무인집권기 지식인이었던 최자는 개경, 평양, 강도에 대해 노래한 〈삼도부(三都賦)〉를 지었다.

서도가 처음 만들어질 때  
동명이라 이름한 임금이  
구천으로부터 내려와  
아래 땅을 돌보시고  
여기에 집을 정하셨다<sup>74)</sup>

여기에서는 서도(평양)가 만들어진 때 동명왕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여 평양을 고구려와 연결시키는 의식을 보여주었다. 이는 계승의식이 삼국시대에 국한되던 시기 평양의 함의를 보여준다.

그렇지만 고려인들의 계승의식은 대몽 항쟁기, 몽골 간섭기를 거치면서 변화했다.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이 시기에는 민족의 시조로서 단군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삼국 유민의식을 넘어선 집단 의식이 형성되었다. 삼국유사에서 처음 기록된 단군은 이승휴의 《제왕운기(帝王韻紀)》에서는 국조의 위치로 승격되었다. 그 이전부터 동방 문

73) 서영대, 1994 〈檀君關係 文獻資料 研究〉 《檀君 : 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학교 출판부, 68쪽.

74) 《동문선》 권2 부(賦) 「三都賦」 ; “西都之創先也 帝號東明 降自九玄 乃眷下土 此維宅焉”

명의 시조로서 추앙받던 기자(箕子) 역시 고조선이 부각되는 과정에서 더욱 중시되어갔다. 이것이 공인되어 당시 지식인들은 국가의 시조로서 단군과 기자를 언급했다.<sup>75)</sup> 의식의 변화는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에서 제시하는 명분에 차이를 가져왔다. 고려 말 공민왕시기 요동에 있는 동녕부를 공략하면서 이 지역이 고려의 영토임을 알리는 방을 내걸었는데 여기에서는 “본국은 요임금 때 세워졌고, 주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면서 영토를 그에게 내렸으니 서쪽으로 요하에 이르기까지 강역을 대대로 지켜왔다”라고 하여 영토 귀속의 근거로 고조선과 기자를 들고 있다.<sup>76)</sup> 이는 이전 거란과의 영토귀속 논쟁에서 서희가 고구려를 근거로 대었던 것과는 확연하게 구분된다.

고려 말 학자이자 여러 역사적 인물들의 스승이었던 이색 역시 단군과 기자를 매우 강조했다. 이색은 다양한 글에서 과거 역사를 언급했는데 단군, 기자의 고조선을 가장 중요시했고 그 이후의 삼국은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삼국은 조선이 혼란해졌을 때 잠시 갈라져 있던 과도기적 시기일 뿐으로 보았다.<sup>77)</sup> 특히 그 안에서도 고구려를 특별히 더 강조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고구려는 그저 삼국의 하나였을 뿐이며 그나마도 임시적인 것에 불과했다.

조선왕조는 이러한 지적 분위기 아래에서 탄생한 왕조였다. 일찍이 서희가 고구려를 이었기에 나라의 이름을 고려로 정했다고 주장했던 것처럼 조선이라는 그 국호에서부터 조선왕조가 추구하는 역사적 계승의 대상이 무엇인지가 드러난다. 역사 계승의식은 조선 건국을 주도했던 정도전에게서 분명히 찾아볼 수 있다.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의 국호(國號)조에서 정도전은 각 나라들의 국호에 대해서 논했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에 대해 논하기를 “모두 한 지역을 몇대로 차지해 중국의 명

75) 임형택, 1996 〈고려 말 문인지식층(文人知識層)의 동인의식(東人意識)과 문명의식(文明意識)〉 《牧隱 李穡의 生涯와 思想 : 逝世 600週期 追慕論文集》, 一潮閣, 297-298쪽.

76) 《고려사》 권132 열전45 반역6 「池龍壽」 ; “本國與堯並立 周武王封箕子于朝鮮而賜之履 西至于遼河 世守疆域”

77) 김남일, 2005 《고려말 조선초기의 세계관과 역사의식 : 이색(李穡)과 권근(權近)을 중심으로》, 景仁文化社, 36쪽.

령을 받지 않고서 스스로 명호를 세우고 서로를 침탈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와 대비시켜 오직 기자만이 중국의 봉분을 받았음을 강조하고 조선이 그러한 기자 조선의 이름을 이었음을 높이 평가했다.<sup>78)</sup> ‘회령’과 ‘조선’ 중에서 국호를 조선으로 확정해 준 것은 명나라이지만 이미 고려왕조 말기부터 스스로가 조선인이라는 의식은 만들어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명나라가 국호를 정해주었다는 사실 자체가 왕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명나라가 조선을 책봉하고 국호를 준 것은 조선을 기자조선과 더 확실하게 연결하면서 조선왕조가 역사상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가지는 차별성과 도덕적 우위를 증명하는 장치로 작용했다.

단군, 기자에 대한 존숭 역시 조선으로 접어들면서 본격화되었다. 조선은 삼국을 아우른 나라로 삼국 중 하나인 고구려에 특별히 계승의식을 더 가지지는 않았다. 조선은 고구려를 계승했던 고려를 넘어 더 이전의 권위를 끌어왔다. 중국 문명 수용의 상징인 기자와 조선 국가의 상징인 단군은 동시에 국가제사의 대상이 되었다.<sup>79)</sup> 여기에 더하여 조선은 신화적 존재였던 둘을 역사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삼국유사에 제시되어 있는 단군의 재위기간을 단군 왕조의 지속기간으로 해석하는 등 단군신화의 비합리적, 신화적 요소를 제거하고 역사성을 부각시켜 그를 인간, 군주로 이해하려는 작업이 시도되었다. 여기에 더해 단군이 세 아들을 시켜 강화도에 삼랑성을 축조하고 왕자 부루를 도산회의에 참석하게 했다는 식의 치적들이 제시되었다.<sup>80)</sup> 이전부터 평양과 관련해서 언급되던 기자에 대한 강조가 분명해졌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양’은 이전 최자가 노래했던 고구려 수도로서의 의미보다 단군, 기자가 도읍한 땅이라는 의미가 더 중요해졌다. 평양은 고구려의 수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단군과 기자의 수도로 알려진 곳이기도 했다. 이성계는 1392년 7월 17일에 왕위에 올랐고 28일에 정식으로 즉위했다. 직후 8월 11일 예조에서 글을 올려 평양부로 하여금 단군과

78) 鄭道傳, 《三峰集》 권13 〈朝鮮經國典〉 「國號」

79) 도현철, 2013 〈조선초기 단군 인식과 삼국유사 간행〉 《동방학지》 162, 40쪽.

80) 서영대, 1994 앞의 논문, 72쪽.

기자에 대한 제사를 지내게 했다.<sup>81)</sup> 이러한 조치는 조선이 국가의 정통성을 고조선에 두었으며 그 중심지를 평양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준다. 이와 대조적으로 고구려를 포함한 삼국의 시조에 대한 제사가 이루어진 것은 세종조의 일이었다.<sup>82)</sup> 심지어 그 두해 전에는 삼국의 시조 묘를 각각 세우고자 하지만 고구려의 도읍이 어디인지 모른다는 보고가 올라올 정도였다.<sup>83)</sup> 이러한 사실들은 기자와 단군이 합쳐진 고조선이 조선이 지향하는 바였고 평양은 그 근거지로 이해되는 곳이었음을 보여준다. 조선은 단군에 대한 숭배 공간을 평양으로 한정지어 단군에 대해 제사하던 황해도의 구월산 삼성사를 인정하지 않고 평양에 새로 단군의 사당을 건립하기도 했다.<sup>84)</sup> 이러한 조치는 조선이 고조선 계승을 나타내는 공간을 평양으로 집중시켰음을 보여준다.

### 3. 권근의 인식

〈천문도지〉를 해석할 때는 또한 그 저자인 권근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권근이 과거 역사에서 삼국과 고조선을 어떻게 보았고 어떠한 계승의식을 가졌는지, 그리고 평양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해는 그가 기록한 ‘평양’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천상열차분야지도〉를 통해서 권근이 강조하고자 했던 정통성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줄 것이다.

권근이 가지고 있던 역사계승의식과 평양에 대한 인식이 가장 잘 드러

81) 《태조실록》 태조 1년 8월 11일(경신).

82) 《세종실록》 세종 11년 7월 4일(무신).

83) 이후 동명왕에 대한 제사가 평양에서 이루어지지만 이는 그 시조가 도읍한 곳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 영토 안에서 제사를 시행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결과였다. 이는 고려시대에 실제 고구려의 시조가 도읍했던 지역과 관계없이 동명왕에 대한 제사를 평양에서 지냈던 것과 대조된다. ; 《세종실록》 세종 9년 3월 13일(신축).

84) 서영대, 1994 앞의 논문, 72-73쪽.

난 대표적인 글은 그의 〈응제시(應製詩)〉이다. 〈응제시〉는 양국의 갈등이 이어지던 1396년(조선 태조 5) 표전문제와 관련해 정도전을 압송하라는 명나라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사신으로 파견된 권근이 지은 일련의 시로 단순히 권근이 느끼는 풍취에 대한 묘사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의해 쓰여졌다. 명 홍무제는 권근에게 3편의 〈어제시(御製詩)〉를 주었는데 그 내용에서 압록강이 옛날 조선이 봉해진 경계라고 하고 과거한 무제의 정벌, 요동 전쟁 등의 역사를 언급하며 위협했다.<sup>85)</sup> 고려 말 최영의 주도로 요동 정벌이 추진된 바 있었고 조선 초기에도 그 진의는 불분명하나 정도전, 남은의 주도로 요동공격이 논의되고 있었음을 고려할 때 홍무제의 〈어제시〉는 조선과의 영토분쟁에서 요동이 명나라에 귀속되는 지역임을 분명히 하며 이를 통해 유지되는 양국의 평화를 강조하는데 그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응제시〉는 이 같은 〈어제시〉에 대한 답변으로 쓰여진 것이다. 당시 조선은 국호에서부터 책봉, 인장에 대한 요구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명나라와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조선이 추구하는 관계의 형태는 명나라를 천자국으로, 조선을 제후국으로 하는 고래의 봉건적 국제관계이다. 이는 고려 말부터 지식인들이 바라던 이상적 세계의 형태이자 외교적 안정 및 정치적 자율성의 획득을 위해 추구하던 관계형태이기도 했다.<sup>86)</sup> 권근의 〈응제시〉는 조선이 봉건적 질서를 따라왔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다.

〈응제시〉는 지어진 날짜에 따라 셋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지은 8편의 시는 모두 명나라와 봉건적 질서를 맺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이성계가 “대국을 섬기는데 충성을 다했다”<sup>87)</sup>고 언급하면서 만세토록 황명(皇明)을 받들겠다고 다짐<sup>88)</sup>하고 충성스런 뜻을 만분의 일이라도 황제(宸旒=제왕)에게 전달하고 싶다고 하고 있다.<sup>89)</sup> 이 과정에서 ‘평양’은 조선이 중국과 맺은 봉건질서의 전통에 대한

85) 장지연, 2015 〈고려 말 조선 초 봉건제(封建制) 이상(理想) 속의 수도(首都) 인식과 그 위상〉 《서울학연구》 60, 48쪽.

86) 장지연, 2015 앞의 논문, 53쪽.

87) 《陽村集》 권 1 〈應製詩〉 「李氏移去」(이하 《양촌집》의 원문과 해석은 고전번역원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했다.); “事大盡忠誠”.

88) 《陽村集》 권 1 〈應製詩〉 「李氏移去」; “萬世奉皇明”.



상징으로 제시되었다. 아래의 시는 〈서경을 지나다〉라는 제목으로 먼저 지어진 시 중 하나이다.

일천 년 기자 나라 바다를 베고서  
팔조(八條)로 남은 풍속 지금에 이르도록 보존했네  
높디높은 먼 산봉우리는 평야를 에워싸고  
길고 긴 강은 옛 마을을 둘러싸네  
만 리 밖에서 산 넘고 물 건너 항상 조공하니  
삼한의 강역은 길이 울타리가 되네  
따뜻하게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하시니  
삶을 즐기며 생업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성은이네<sup>90)</sup>

여기에서는 서경이 기자의 풍속이 남은 곳이라는 점을 제시하면서 조선이 중국과 항상 조공을 하는 봉건적 관계를 맺어 왔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중국과 봉건질서를 맺은 제후국이라는 관념의 시조로 여겨지는 기자의 존재를 통해 조선과 명의 봉건적 관계를 강조하고 외교적 관계 회복을 꾀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서경, 즉 평양은 기자의 나라 그 자체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제시되고 있다.<sup>91)</sup> ‘평양’의 쓰임은 다른 날에 지은 시에서도 찾아진다.

기자 옛터에 땅이 절로 평안한데  
큰 강이 서쪽으로 흘러 외로운 성을 감쌌네  
안개 낀 물결이 아스랑게 하늘에 멀리 이어지고  
모래와 물이 맑고 깨끗해 밑바닥까지 맑네  
온갖 내를 널리 받아 항상 찰랑찰랑하니  
만상을 받아 더욱 넘실넘실하네

89) 《陽村集》 권 1 〈應製詩〉 「出使」；“願陳忠款志 萬一達宸旒”.

90) 《陽村集》 권 1 〈應製詩〉 「道經西京」；“千載箕封枕海門 八條遺俗至今存 峨峨遠岫圍平野 袞袞長江繞古村 萬里梯杭常入貢 三韓疆域永爲藩 殷勤爲與居民說 得遂生生是聖恩.”

91) 여기에서 각국 수도는 나라 그 자체이자 질서의 중심 표현 키워드이다 ; 장지연, 2015 앞의 논문, 48쪽.

힘차게 바다로 흘러드는 조희하려는 뜻  
마치 우리 왕의 사대하려는 정성같네<sup>92)</sup>

권근은 2차로 10편의 〈응제시〉를 지었는데 여기에서는 한반도에 있었던 이전 국가들의 역사와 조선의 풍광에 대해 다루고 있다. 위의 시는 〈대동강〉으로 역시 평양에 대해서 노래했다. 여기에서 대동강이 제시되는 의도는 앞날의 시에서 서경이 제시되는 의도와 같다. 여기에서 평양은 다시 ‘기자 옛터’로 상징되고 있다. 또한 이를 감싸는 대동강은 그것이 바다로 흘러간다는 모습을 통해 대국을 섬겨 조희하려는 정성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역시 평양이 기자의 공간이자 조-명의 봉건적 국제질서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차로 지은 시에서 역사가 아닌 풍광을 다룬 작품은 〈금강산〉과 〈신경지리(新京地理)〉 그리고 〈대동강〉 뿐이다. 1차로 지은 시에서 서경이 주제로 잡힌 것처럼 여기에서 금강산, 한양과 더불어 평양을 주제로 삼은 것 역시 평양이란 공간의 상징성을 활용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응제시〉의 위와 같은 사항들을 확인했을 때 기자라는 존재는 조-명간 안정적인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상징적 존재이며 그 상징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공간이 서경, 그리고 대동강, 즉 평양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응제시〉에서는 권근이 가지고 있는 역사의식을 또한 알 수 있다. 〈진한〉에서 그는 삼국시대에 대해 각 나라가 솔밭처럼 대치해 전쟁으로 곤궁했다고 묘사하며 고려에 이르러서 비로소 통일되었다고 묘사했다. 뒤의 〈마한〉, 〈변한〉의 시에서도 모두 삼국은 서로 싸우느라 백성이 편안하지 못했고 통일된 이후에야 안정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sup>93)</sup> 여기에서 통일 이전까지 전쟁을 지속하던 삼국을 고려가 비로소 통일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삼국 인식은 이색, 정도전의 역사 인식과 맞닿아 있다. 앞서 제시했던 정도전의 〈조선경국전〉에서와 마찬가지로 권

92) 《陽村集》 권 1 〈應製詩〉 「大同江」；“箕子遺墟地自平 大江西拆抱孤城 烟波縹渺連天遠 沙水澄明徹底清 廣納百川常混混 虛涵萬像更盈盈 霏然入海朝宗意 正似吾王事大誠.”

93) 《陽村集》 권 1 〈應製詩〉 「辰韓」, 「馬韓」, 「弁韓」.

근은 삼국시대를 불완전한 과도기로 보았다. 고구려가 삼국의 하나였던 만큼 긍정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응제시〉에서 나타나는 권근의 인식과 평양에 대한 의미부여는 명나라와의 외교적 갈등이라는 당대의 정치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는 대외적으로 뿐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동일하게 활용되었다. 기자는 중국과 맺은 봉건질서의 상징인 동시에 교화의 시조로서 당대 유신들의 관념에 체화되어 있는 존재였으며 이는 권근에게서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중국과 봉건적 국제관계를 맺었다는 인식은 조선이라는 왕조가 가진 정당성의 중요 요소였다. 그렇기 때문에 〈응제시〉에서 나타나는 외교적 수사는 국내에서 왕조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조선의 땅은  
바다 동쪽에 있으니  
단군이 일으키고 기자가 다스려  
좋은 풍속으로 드러났네  
세 지방이 할거하다  
왕씨가 통일하고  
우리 임금 일어나니  
사업이 더욱 높네

신라와 백제와  
더불어 고구려는  
사사로이 호칭을 세워  
그 기강이 흩어 없더니  
우리가 황제의 명을 받아  
비로소 바르게 할 수 있었네  
기자가 봉해진 곳에 자리잡아  
억만 년을 전하려네<sup>94)</sup>

---

94) 《陽村集》 권 1 〈應製詩〉 「進天監華山神廟詩」；“維朝鮮境 殿海之東 檀輿箕父 闡以醇風 三方割據 王氏統同 我后之作 基緒益隆 曰羅曰濟 暨高麗氏 私立號

위의 시는 명 황제에게 바치는 시가 아니지만 〈응제시〉와 마찬가지로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여기에서는 권근이 가지는 역사의식이 나타난다. 여기에서 권근이 분열되어 있던 삼국을 고려가 통일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 삼국은 사사롭게 호칭을 세워 기강이 없었던 존재로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대비되어 명나라의 명을 통해서 국호를 확정한 조선은 기강을 바르게 한 존재로 나타난다. 새로운 왕조가 자리 잡은 땅이 기자가 봉해진 곳(箕之封)이라고 표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기자 계승의식을 내부적으로도 표방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고구려에 대해 특별한 계승의식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 권근은 삼국은 크게 강조하지 않으면서 고조선에 대해 강한 계승의식을 표방했다.

특히 위 시의 제목은 이성계가 천명을 받았음을 강조하는 〈천감(天監)〉으로 왕조교체를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시를 바치는 서문에서는 〈천상열차분야지도〉와 마찬가지로 정당화 방식이 등장한다. 서문에서는 이성계가 “음양으로써 나라를 소유했다(以揖讓而有國)”고 표현하고 있다.<sup>95)</sup> 선양이 음양으로 바뀌었을 뿐 〈천상열차분야지도〉에 나타나 있는 표현과 동일하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성계의 덕을 요, 순과 일치시키며 “하물며 우리 전하의 높고 큰 덕은 한, 당을 훨씬 앞서 요, 순을 좇으니 진실로 시로써 덕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어 무궁히 전함이 마땅합니다.”<sup>96)</sup> 라고 하고 있다. 이성계의 왕

稱 散無其紀 我受帝命 克正于始 履箕之封 傳億萬祀.” ; 본 시는 《양촌집》의 〈응제시〉에 함께 수록되어 있지만 엄밀히 말해 〈응제시〉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이것은 이성계에게 바친 시로 궁중에서의 음악으로 쓰이기 위한 목적에서 지어진 것이다. 서문에 “비록 그 시어가 거칠고 미숙하여 그로써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기에 부족하더라도 혹여 태사에게 명하시어 한번 채택해 그것을 연주 한다면 큰 은총을 이루 다 이기지 못하겠습니다.(雖其詞語粗淺 不足以宣暢其美 倘命大師 一採而陳之 不勝幸甚)”라고 하고 있는 것에서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한양천도를 찬미하는 〈華山〉이 함께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제작과 거의 같은 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95) 《陽村集》 권 1 〈應製詩〉 「進天監華山神廟詩 并序」. ; “主上殿下 神武應期 受命啓統 以揖讓而有國 乃定都于漢水之陽” ; 음양은 선양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실록에서도 요, 순의 선양을 음양이라고 표현한 것을 찾을 수 있다. “堯舜揖讓 湯武征伐” ; 《태종실록》 태종 13년 12월 1일(병오)

96) 《陽村集》 권 1 〈應製詩〉 「進天監華山神廟詩 并序」. ; “況我殿下 巍蕩之德

위 등극을 선양이라고 묘사하고 그 덕을 요, 순에 연결시키는 이런 모습은 <천상열차분야지도>에 나타나 있는 방식과 동일하다. 이 안에서 ‘평양’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단군이 일으키고 기자가 다스려 좋은 풍속으로 이름났다”고 하면서 사사로운 호칭인 신라, 백제, 고려를 조선이 비로소 바르게 했다고 하며 기자의 땅에 자리 잡았다고 서술했다. 이 시는 <천상열차분야지도>와 동일하게 한양 천도 직후 지어졌다. 이 시와 시 서문의 서술은 권근이 이성계의 왕조 교체를 정당화하는 방식을 보여주며 같은 목적으로 같은 시기에 제작된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된 것인지를 확인하게 해준다.

권근이 국내에서 쓴 글에서도 평양이 이해되는 방식은 <응제시>와 같았다.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4년 과거 홍건적의 난으로 파괴되었던 평양성의 대동문을 복구하였는데 당시 부윤이었던 조온(趙溫)이 권근에게 대동문루에 글을 써 달라고 부탁했다. 그에 대한 권근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평양은 곧 고조선의 기자가 도읍했던 곳이다. 구주(九疇)는 천인의 학문이고 팔조는 아름다운 풍속으로 진실로 우리 동방에서 수천 년간 예의를 교화한 토대이니 아, 아름답다. 위만으로부터 고(高)씨를 거치며 오로지 무력을 숭상해 그 풍속이 크게 변했다... 다른 날에 만일 올라가 볼 수 있으면 마땅히 먼저 백성을 위해 황극(皇極)의 말을 강론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기자의 은택이 동방에 깊이 스며들어 비록 만세에 이르러도 없어지지 않을 것과 지금 천자께서 국호를 하사한 은혜와 전하께서 옛 것을 회복한 덕이 실로 무왕이 기자를 봉하여 기자가 조선을 다스린 것과 동일한 도리임을 알게 하겠다.<sup>97)</sup>

권근은 이 글에서 평양을 기자의 도읍이자 동방 교화의 토대라고 매우

超軼漢唐而追堯舜 誠宜有詩以揚德美 以傳罔極”

97) 《陽村集》 권 12 記類 「平壤城大同門樓記」; “平壤卽古朝鮮箕子之所都也 九疇天人之學 八條風俗之美 實基我東方數千載禮義之化 猗歟休哉 自衛滿歷高氏 專尙武強 其俗大變...他日儻獲登覽 當先爲民講論皇極之敷言 使其民知箕子之澤漸漬東方者甚深 雖至萬世而不泯 今天子錫號之恩 殿下復舊之德 實與武王之封箕子 箕子之治朝鮮 同一揆也”... ; 이는 1394년에 지은 것이다.

중요하게 강조했다. 특히 여기에서 위만에서 고구려에 이르는 기간이 아름다운 풍속을 가지고 있었던 기자의 치세와 대비되는 대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평양이 고씨, 즉 고구려가 도읍한 땅이라는 사실도 언급하고 있지만 고구려는 무력만을 숭상한 국가로 전혀 긍정적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다. 이를 보면 권근은 평양이 고구려의 수도이기도 했다는 점을 결코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강조할 의도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권근은 여기에 더해 《서경》에 기자가 주 무왕에게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황극을 강론함으로써 기자의 은덕을 드러내겠다고 다짐하면서 지금 명-조선의 관계가 주 무왕과 기자의 그것과 동일한 법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은 기자의 존재가 조선왕조의 건국을 정당화하는 핵심적인 요소였으며 동시에 평양은 기자가 전한 예의의 토대라고 이해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위의 사례들은 권근이 〈응제시〉에서 보여준 기자와 평양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것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관념이 단순히 조선과 명의 외교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부에서도 표방하며 공식적인 정당화 방법으로도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유교적 명분론에 입각해 글을 썼던 권근임을 고려할 때 그가 저술한 〈천문도지〉에서 사용된 ‘평양’이라는 표현은 그가 부정적 요소와 연결 지어 이해하던 고구려가 아닌 그가 찬미하는 기자의 고조선과 연관해 사용되었다고 판단된다.

고조선에 대한 중시가 곧 고구려에 대한 비하나 무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사람들이 관심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문제에서 중요하다. 고구려에 대해서는 수, 당의 군사로도 굴복시킬 수 없었다는 식의 긍정적 평가들 역시 공존한다.<sup>98)</sup> 그렇지만 이는 고조선에 대한 존숭에는 미치지 못한다. 여말선초 지식인들이 삼국에서 고구려를 특별 대우했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다. 그에 비해 고조선을 특별 대우했음은 여러 곳에서 찾아진다. 특히 〈천문도지〉의 저자인 권근은 그 안에서 기자를 더욱 강조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평양’이 가지는 함의가 무엇일지는 분명하다.

98) 권근, 《陽村集》 권 19 「送平壤府尹李公原詩序」.

권근이 천문도의 유래를 설명하며 ‘평양성’을 언급한 이유는 그가 조선 왕조의 정통성을 고조선에 연결시키고자 했기 때문이다. 특히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도설이 남에게 읽히기 위해서 쓰였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당시의 사람들은 당대인들이 이해하는 대로 도설의 ‘평양성’을 읽었을 것이다. 조선왕조 개창 초기에 조선이 평양에 대해 만들고자 했던 이미지를 고려하면 이 ‘평양성’은 고구려가 아닌 고조선, 그 안에서도 특히 기자를 의미하는 표현이었다. 그리고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권근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왕명으로 만들어진 공적 유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천문도지>에서 나타나는 계승의식은 권근 개인만이 아닌 조선 건국 세력에게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던 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 맺음말

이제까지 〈천상열차분야지도〉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를 검토하고 권근이 지은 도설의 내용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시도해 보았다. 고구려 기원설을 처음으로 제기한 인물은 미국인 천문학자였던 윌 칼 루퍼스(Will Carl Rufus)였지만 그 내용이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루퍼스가 본래 제기했던 근거는 옳고 다른 사료가 주된 근거인 것처럼 바뀌었으며 그 과정에서 주장이 점차 구체화되었다. 루퍼스가 고구려 기원설을 주장하면서 제기했던 문헌 근거는 《대동야승》에 수록된 〈양춘도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상운의 연구를 시작으로 후대의 연구들은 〈천문도지〉 자체가 고구려 기원에 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처럼 이해했다. 전상운 류의 이해와 다른 방식으로 그 유래에 대해 검토한 연구도 있었지만 안상현의 연구를 제외하면 기존 주장을 그대로 따랐다.

고구려 기원설은 문헌적으로, 천문학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며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직접적인 모본은 고려의 천문도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루퍼스는 고구려 기원설과 관련해 〈양춘도설〉의 내용을 잘못 해석하여 ‘고려 말’이라는 표현을 고구려 말로 오독했다. 이는 〈양춘도설〉의 사료적 신빙성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고구려 기원설에 대한 기존의 이해가 잘못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기존 천문학적 분석 결과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천상열차분야지도〉의 관측 추정 시기와 지역은 낙랑군이라는 결론이 도출되므로 고구려 기원설을 증명해주지 못한다. 무엇보다 기존의 연구들은 천문도 제작시기 추정의 상한만을 제시했을 뿐 문헌근거를 잘못 해석함으로써 추정 시점의 적절한 하한을 제시하지 못했다.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중앙 부분 관측 위도는 38도로 확인된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이것을 고구려 천문도가 조선 초기 개정된 증거로 파악했지만 도설의 내용 및 중국 천문도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이 관측 위도는 도리어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모본이 고려의 천문도임을 보여주는 근거이다.

권근이 〈천문도지〉에서 언급한 ‘평양’은 고조선의 수도였던 평양을 가리키는 함의를 가지며 이는 〈천문도지〉가 조선 초기 건국세력들의 역사



계승의식을 보여주는 사료임을 의미한다. <천문도지>에서 고려-조선의 왕조교체를 요, 순의 선양과 연결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천문도지>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기보다 왕조의 정통성을 강조하려는 목적을 충실히 따랐다. 이는 ‘평양’이라는 표현 역시 정통성 강조라는 목적에 의해 쓰인 것임을 보여준다. <천상열차분야지도>가 만들어지던 시기의 조선은 고구려보다는 단군, 기자의 고조선에 대한 계승의식을 더 크게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평양은 단군, 기자의 도읍이었다는 측면에서 중시되었다. 도설의 저자인 권근 역시 마찬가지로이다. 그는 명나라 황제와 시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평양’을 기자와 연관된 봉건적 국제관계의 상징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한 새로운 왕조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요, 순과 선양을 언급하고 동시에 국가의 정통성을 기자에 연결시켰다. 이상의 사항은 <천문도지>의 ‘평양’이 가지는 의미를 추론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천상열차분야지도>은 조선 초 지식인들의 고조선 계승의식을 보여주는 사료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고구려의 천문지식과 절대 무관계하다고 완전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천문도가 묘사되어 있다는 것을 볼 때 고구려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천문지식 전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의 천문지식 체계가 이후 시대까지 전달되어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제작하는데 기반이 되었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고구려의 천문도가 존재했으며 그 체계가 이후에도 전해졌다는 것과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모본이 고구려의 석각 천문도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다. 고려의 천문도가 존재했고 이것이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직접적인 모본이 되었다면 설령 고려의 천문도가 고구려의 천문도로부터 내려오는 천문관측 지식과 체계를 일부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유래를 고구려의 천문도라고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그러한 지식 체계의 전달 과정에서 원래의 모습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후대의 유물을 가지고 전 시대의 지식체계를 단정 짓는 것은 합당하지 않을 것이다.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유래가 고구려의 천문도라고 주장한다면 고구려

이후 조선에서의 천문도 제작까지 아무런 천문도도 없는 빈 공백기가 설정되게 된다. 나일성은 “고구려의 천문도가 이렇게 조선 초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실을 생각해보면 볼수록 고구려를 이은 왕조인 고려에 이렇다 할 천문도가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연구가 이에 미치지 못한 탓인가.”라고 자문했다.<sup>99)</sup> 이러한 이해는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유래가 고구려의 천문도로 기록되어 있다는 루퍼스의 잘못된 주장이 계속해서 재생산된 결과이다.

기존 연구에서 이루어진 〈천상열차분야지도〉의 관측위도 및 관측시기 비정은 다분히 모본이 고구려의 천문도라는 주장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졌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천문도 제작 과정의 여러 단계에서 불가피한 오차가 발생하며 이는 지속적으로 누적된다. 그러한 오차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유물에 대한 분석이 잘못된 문헌 해석 내용과 일치한다고 인식함으로써 오차를 무시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고구려 기원설이라는 전제를 바꿀 때 〈천상열차분야지도〉에 대한 천문학적 연구도 새로운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천문도지〉에 표현된 ‘평양’의 의미가 조선 초기 기자계승 의식과 연관된다는 것은 조선 초 건국세력들이 정통성을 나타내는 방식을 보여준다. 권근 뿐 아니라 정도전을 비롯한 조선 건국세력들의 글에서는 과거 기자조선에서 가지고 있었던 도(道)와 아름다운 풍속이 이후 고려에 이르는 기간 동안 끊어졌다가 조선이 이를 다시 회복했음을 강조하려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는 왕조교체와 관련해 조선이 고려를 우회하는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이 고조선 계승을 표방한 의도 또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천상열차분야지도〉에서 고려의 천문도를 기반으로 제작된 천문도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고려의 흔적을 없애고 이를 기자가 도읍했던 평양과 연결시킨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했을 때 〈천상열차분야지도〉는 조선 건국세력이 고려를 우회해 정통성을 확보하려 한 노력을 보여주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

99) 나일성, 2000 앞의 책, 84쪽.

## 참 고 문 헌

### 사료

#### 1. 연대기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 2. 문집

《牧隱集》

《陽村集》

《三峰集》

#### 3. 기타

《大東野乘》

《東文選》

《理藪新編》

《增補文獻備考》

《海東雜錄》

### 연구

#### 1. 단행본

〈한국어〉

김남일, 2005 《고려말 조선초기의 세계관과 역사의식 : 이색(李穡)과 권근(權近)을 중심으로》, 景仁文化社

나일성, 2000 《한국천문학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모리스 꾸랑 저, 이희재 역, 1994 《한국서지》, 一潮閣  
 문중양, 2006 《우리역사 과학기행》, 동아시아  
 박성래, 2011 《인물 과학사》, 책과 함께  
 박성래, 2012 《한국과학사상사》, 책과 함께  
 박창범, 2002 《하늘에 새긴 우리역사》, 김영사  
 \_\_\_\_\_, 2007 《(한국의 전통 과학)천문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북한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저·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 저·한국과학사  
 편찬위원회 편저, 2001 《한국과학사》, 여강출판사  
 신동원, 2007 《우리 과학의 수수께끼》 2, 한겨레  
 양홍진, 2014 《디지털 천상열차분야지도》, 경북대학교출판부  
 이문규, 2000 《고대 중국인이 바라본 하늘의 세계》, 문학과 지성사  
 전상운, 1966 《韓國科學技術史》, 科學世界社  
 \_\_\_\_\_, 1976 《韓國科學技術史》, 正音社  
 \_\_\_\_\_, 2000 《한국과학사》, 사이언스북스  
 \_\_\_\_\_, 2005 《韓國科學史：技術的伝統の再照明》, 日本評論社  
 한국과학문화재단 편, 1997 《우리의 과학문화재》, 서해문집  
 한국천문연구원 편, 2013 《천문을 담은 그릇》, 한국천문연구원  
 한국 천문학사 편찬위원회 편, 1999 《한국 천문학사 연구 : 소남 유경  
 로 선생 유고논문집》, 녹두  
 홍이섭, 1944 《朝鮮科學史》, 三省堂出版創立事務所

#### 〈영어〉

Joseph Needham, 1954 *Science and Civilization in China vol 3*,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_\_\_\_\_, 2004 *The Hall of Heavenly Records : Korean  
 astronomical instruments and clocks, 1380-1780*, Cambridge ;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2010 《조선의 서운관 : 조선의  
 천문의기와 시계에 관한 기록》, 살림)

W. C. Rufus, 1936 *Korean astronomy*, Seoul : The Bravch

## 2. 논문

〈한국어〉

구만옥, 2007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 연구의 쟁점(爭點)에 대한 검토(檢討)와 제언(提言)〉 《동방학지》 140

김시황, 2009 〈기자조선(箕子朝鮮) 및 평양(平陽)과 평양(平壤)〉 《東洋禮學》 22

김영식, 1996 〈출간 30년 후에 읽는 全相運, 《韓國科學技術史》〉 《한국과학사학회지》 18

남지대, 1991 〈조선전기의 역사의식〉 《한국사상사대계》 4

도현철, 2013 〈조선초기 단군 인식과 삼국유사 간행〉 《동방학지》 162

문중양, 2004 〈조선 후기 서양 천문도의 전래와 신,고법 천문도의 절충〉 《한국과학사학회지》 26

박성환, 1986 〈태조의 석각천문도와 숙종의 석각천문도의 비교〉 《한국과학사학회지》 8(1)

박명순, 1995 〈天象列次分野之圖에 대한 고찰〉 《한국과학사학회지》 17(1)

박창범, 1998 〈天象列次分野之圖의 별그림 분석〉 《한국과학사학회지》 20(2)

서영대, 1994 〈檀君關係 文獻資料 研究〉 《檀君 : 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학교 출판부

안상현, 2011 〈천상열차분야지도에 나오는 고려시대 피휘와 천문도의 기원〉 《古宮文化》 4

\_\_\_\_\_, 2013 〈『天象列次分野之圖』 圖說의 문헌학적 연구〉 《民族文化》 42

유미나, 2015 〈조선 시대 기자(箕子)에 대한 인식과 기자(箕子) 유상(遺像)〉 《강좌미술사》 44

- 오수창, 2012 〈조선후기 체제인식과 민중운동 試論〉 《韓國文化》 60.  
 \_\_\_\_\_, 2015 〈정조와 『일성록』 - 연구방법 제안-〉 《한국 고전번역  
 50년 기념 학술대회 발표문》, 한국고전번역원
- 이은성, 1986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분석〉 《세종학연구》 1
- 임형택, 1996 〈고려 말 문인지식층(文人知識層)의 동인의식(東人意識)과  
 문명의식(文明意識)〉 《牧隱 李穡의 生涯와 思想 : 逝世 600週期 追  
 慕論文集》
- 장지연, 2015 〈고려 말 조선 초 봉건제(封建制) 이상(理想) 속의 수도  
 (首都) 인식과 그 위상〉 《서울학연구》 60
- 한영호, 2007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의 실체 재조명〉  
 《古宮文化》 1

#### 〈영어〉

- W. C. Rufus, 1913 “The Celestial Planisphere of King Yi Tae Jo”  
*Transactions of Korean Branches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4(3)
- \_\_\_\_\_, 1915 “Korea's Cherished Astronomical Chart” *Popular  
 astronomy* 23(4)
- W. C. Rufus and Celia Chao , 1944 “A Korean Star map” *Isis* 35(4)

【Abstract】

# The View of Historical Succession of the Joseon Dynasty Based on Cheonsang-Yeolcha-Bunya-Jido

Namgung, Seungwon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heonsang-Yeolcha-Bunya-Jido is a celestial planisphere carved on a stone slab in 1395, when Taejo, the first king of the Joseon dynasty (1392-1910), was in his reign. It has been known that the model of this celestial planisphere was the artifact of the Goguryeo kingdom(B.C. 37-A.D. 668). The idea was so widespread that it has been a common sense. This thesis reviews preliminary research of Cheonsang-Yeolcha-Bunya-Jido and reinterprets it as an artifact that shows the view of historical succession and the method of justifying the change of the dynasties in the early Joseon time.

*Chunmundoji*, which explained the origin of Cheonsang-Yeolcha-

Bunya-Jido, showed no evident relationship between the celestial planisphere and Goguryeo. American astronomer Will Carl Rufus was the first researcher who established the theory that the celestial planisphere originated from Goguryeo. The main written source he suggested was *Yangchondoseol*, the part of *Taitongyasung* not *Chunmundoji*. However, since Sang-woon Jeon misunderstood *Chunmundoji* as the main source that proves the theory, most research followed his idea. Although a few researchers studied the origin of Cheonsang-Yeolcha-Bunya-Jido in different ways, they could not refute the main research trend head-on.

There is strong likelihood that the original model of Cheonsang-Yeolcha-Bunya - Jido was an astronomical chart of the Goryeo dynasty(918-1392). The theory of Goguryeo origin is based on insufficient written sources and astronomical evidences. Rufus misinterpreted a certain word as 'late Goguryeo,' which originally means 'late Goryeo'. This means that there is no appropriate source in the written format supporting the theory of Goguryeo origin.

Existing astronomical analyses on the celestial planisphere also have problems in supporting the theory. Ironically, the results of existing analyses draw the conclusion that Cheonsang-Yeolcha-Bunya - Jido was made at the age of the Lelang Commandery, not of Goguryeo. Also, preliminary research depended on Rufus' erroneous interpretation when setting lower limit on the presumption of the time that the original model was made.

The latitude of the observation of the central part of Cheonsang-Yeolcha-Bunya - Jido is 38 degrees north latitude. This was understood in previous researches as an evidence that shows the original model was revised in early Joseon. However, this assumption conflicts with the content of *Chunmundoji*. Considering the facts that



Cheonsang-Yeolcha-Bunya - Jido contains the naming taboo of Goryeo and the contents of Chinese astronomical articles of the 11<sup>th</sup> century, and the contents of *Chunmundoji*, the latitude of the observation of the central part is an evidence that shows Cheonsang-Yeolcha-Bunya - Jido was made by Goryeo of which capital was located at 38 degrees north latitude.

In order to understand the origin of the celestial planisphere, “Pyeongyang”, which was suggested as the location of the original model of Cheonsang-Yeolcha-Bunya - Jido in *Chunmundoji*, must be interpreted in a new way. The “Pyeongyang”, Gwon Geun mentioned in *Chunmundoji*, has the undertone of the capital of the Gojoseon kingdom. This means that Cheonsang-Yeolcha-Bunya - Jido is historical material that shows the view of historical succession which the founders of the Joseon dynasty had. *Chunmundoji* focused on establishing the legitimacy of the new dynasty rather than conveying the fact. “Pyeongyang” was also used to secure the legitimacy. At the time when Cheonsang-Yeolcha-Bunya - Jido was made, the ruling class of the Joseon dynasty had more notion of historical succession on Gojoseon than Goguryeo, and regarded Pyeongyang highly as the capital of Gojoseon.

The metaphor that Gwon Geun, the writer of *Chunmundoji*, used for “Pyeongyang” is important. In a reply to the poetry of Hongwu emperor of Ming China, Gwon Geun suggested “Pyeongyang” as a symbol of the relationship between Joseon and China represented by Gija. Also, in the article written at the same period of *Chunmundoji*, Gwon Geun used the same logic with *Chunmundoji* to establish the legitimacy and emphasized Gija as the progenitor of the state. This shows the method of the justification used by Gwon Geun, and the meaning of “Pyeongyang” in *Chunmundoji*. In conclusion, Cheonsang-

Yeolcha-Bunya - Jido can be interpreted as historical material that indicates the notion of historical succession of the early Joseon dynasty on Gija.

**keywords :** Cheonsang-Yeolcha-Bunya-Jido, Astronomical chart, Celestial planisphere, Kwon Geun, View of historical succession, Gojoseon, Gija, Jizi

*Student Number :* 2014-22250